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  
비교 연구  
-초급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이 소 정

2023년 2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  
비교 연구  
-초급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지도교수 최 대 희


이 소 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이소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현정 

위 원 배 영환 

위 원 최 대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3년 2월

A Comparative Study of Postposition Aspect  
in Korean Textbooks  
-Targeted at Beginner's Korean Textbooks-

So-Jeong Lee  
(Supervised by professor Dae-Hee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202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Dae-Hee Choi, Prof.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Interdisciplinary Course of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 비교 연구

### -초급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이 연구는 초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 중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의 조사는 매우 발달하였으며,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조사는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낯설어하고, 배우기 어려워하는 문법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조사를 초급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초급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초급 한국어 교재 중에서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미 모국어를 습득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제2언어로 배우는 한국어의 조사가 더 낯설고, 어려운 문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원미진 외(2020)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한국어 교재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최근에 출판된 교재인 『한국어와 한국문화』(2020), 『서울대 한국어』(2013), 『세종한국어』(2019), 『즐거운 한국어』(2019) 4종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4종의 초급 교재는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첫째,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는 무엇인지, 둘째, 제시된 조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조사는 어떤 순서로 제시되었는지, 넷째,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급 교재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된 조사에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장소, 목적지, 시간)’, ‘에서(장소)’, ‘(으)로(방향)’, ‘보다’, 보조사 ‘은/는(주제)’, ‘까지’, 접속조사 ‘하고’, ‘(이)나’가 있었다. 초급 교재에 제시된 조사 대부분은 서로 다

른 주제에 제시되었고, 공통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초급 교재 4종에서는 첫 번째 교재 1과에서 가장 먼저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 보조사 ‘은/는’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초급 교재에서 부사격조사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교재 초반이나 후반에 상관없이 제시되었다. 그 외의 다른 격조사는 보통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고, 보조사는 대부분의 초급 교재에서 초반과 후반에 모두 제시되었다. 접속조사 ‘하고’는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고, ‘(이)나’는 후반에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종한국어』에서는 보통 ‘명사 뒤에 붙어서 ...을/를 나타낸다.’의 형식으로 조사의 형태, 용법 설명이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형태 설명은 없고, ‘...할 때 사용해요.’라는 형식으로 용법 설명이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와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조사의 형태, 용법 설명이 모두 제시되지 않았지만, 형태 관련 정보는 예시나 도식·표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한 이 연구가 추후에 조사 교육에서의 교재 활용 방향이나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에 토대가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 목 차

<국문 초록> .....	i
목 차 .....	iii
그림 목차, 표 목차 .....	v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	2
3. 연구 대상 및 방법 .....	8
II. 이론적 배경 .....	14
1. 한국어 조사의 개념과 종류 .....	14
1.1. 한국어 조사의 개념 .....	14
1.2. 한국어 조사의 종류 .....	16
2. 초급 한국어 교재 .....	19
2.1.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재 .....	20
2.2.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재 .....	25
III. 한국어 교재별 조사 제시 양상 .....	28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교재 .....	28
1.1. 교재 구성 .....	28
1.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조사 제시 양상 .....	29
2.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초급 교재 .....	41
2.1. 교재 구성 .....	41

2.2. 『서울대 한국어』의 조사 제시 양상 .....	42
3. 『세종한국어(증보판)』 초급 교재 .....	57
3.1. 교재 구성 .....	57
3.2. 『세종한국어』의 조사 제시 양상 .....	58
4.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교재 .....	69
4.1. 교재 구성 .....	70
4.2. 『즐거운 한국어』의 조사 제시 양상 .....	70
IV.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 비교 및 제언 .....	81
1.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	81
1.1. 격조사 .....	81
1.2. 보조사 .....	91
1.3. 접속조사 .....	95
2. 조사의 제시 순서 .....	98
3.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 .....	102
4. 교육 방향성 및 교재 개선 방안 .....	104
V. 결론 .....	110
참고문헌 .....	113
<Abstract> .....	117



##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어와 한국문화』 ‘어휘와 문법’의 ‘문법’ .....	29
<그림 2> 『서울대 한국어』 ‘문법과 표현’ .....	42
<그림 3> 『세종한국어』 ‘대화’의 ‘문법’ .....	58
<그림 4> 『즐거운 한국어』 ‘준비’ .....	70

## 표 목차

<표 1> 교재 사용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	9
<표 2> 한국어 교재의 사용 기관 현황 .....	10
<표 3> 『즐거운/정확한 한국어』의 사용 기관 현황 .....	10
<표 4> 초급 한국어 교재 분석 대상 .....	11
<표 5>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 .....	11
<표 6> 조사의 개념 .....	15
<표 7>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	30
<표 8>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	30
<표 9>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	32
<표 10>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	32
<표 11>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	33
<표 1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조사 제시 형태 .....	35
<표 13>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 예시 1 .....	36
<표 14>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 예시 2 .....	37
<표 15>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 예시 3 .....	38
<표 16>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Tip .....	39
<표 17>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용법 설명 .....	40
<표 18> 『서울대 한국어 1A』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	43

<표 19>	『서울대 한국어 1B』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43
<표 20>	『서울대 한국어 2A』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43
<표 21>	『서울대 한국어 2B』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44
<표 22>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46
<표 23>	『서울대 한국어 1A』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46
<표 24>	『서울대 한국어 1B』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47
<표 25>	『서울대 한국어 2A』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48
<표 26>	『서울대 한국어 2B』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48
<표 27>	『서울대 한국어』의 조사 제시 형태	52
<표 28>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1	53
<표 29>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2	55
<표 30>	『서울대 한국어』 ‘문법 해설’에 나온 형태 정리표	56
<표 31>	『세종한국어 1』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58
<표 32>	『세종한국어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59
<표 33>	『세종한국어 3』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59
<표 34>	『세종한국어 4』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59
<표 35>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60
<표 36>	『세종한국어 1』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61
<표 37>	『세종한국어 2』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62
<표 38>	『세종한국어 3』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62
<표 39>	『세종한국어 4』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62
<표 40>	『세종한국어』의 조사 제시 형태	65
<표 41>	『세종한국어 1』에 제시된 조사 설명	66
<표 42>	『세종한국어 2』에 제시된 조사 설명	66
<표 43>	『세종한국어 3』에 제시된 조사 설명	66
<표 44>	『세종한국어 4』에 제시된 조사 설명	67
<표 45>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1	68
<표 46>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2	69
<표 47>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71

<표 48>	『즐거운 한국어 초급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71
<표 49>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73
<표 50>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73
<표 51>	『즐거운 한국어 초급 2』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74
<표 52>	『즐거운 한국어』의 조사 제시 형태	77
<표 53>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 형태 표 1	78
<표 54>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 형태 표 2	79
<표 55>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돋보기’	80
<표 56>	초급 교재에 제시된 격조사	82
<표 57>	주격조사 ‘이/가’	84
<표 58>	목적격조사 ‘을/를’	85
<표 59>	보격조사 ‘이/가’	85
<표 60>	관형격조사 ‘의’	85
<표 61>	부사격조사 ‘에’	86
<표 62>	부사격조사 ‘에서’	87
<표 63>	부사격조사 ‘에게’, ‘한테’, ‘께’	88
<표 64>	부사격조사 ‘(으)로’	88
<표 65>	부사격조사 ‘보다’	89
<표 66>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	89
<표 67>	부사격조사 ‘(이)라고’	90
<표 68>	초급 교재에 제시된 보조사	91
<표 69>	보조사 ‘은/는(주제)’	92
<표 70>	보조사 ‘부터’	93
<표 71>	보조사 ‘까지’	93
<표 72>	보조사 ‘도’	94
<표 73>	보조사 ‘마다’	94
<표 74>	보조사 ‘밖에’	94
<표 75>	보조사 ‘(이)나’	95
<표 76>	초급 교재에 제시된 접속조사	96

<표 77> 접속조사 ‘하고’ .....	96
<표 78> 접속조사 ‘(이)나’ .....	97
<표 79> 초급 교재의 조사 제시 순서 .....	98
<표 80> 부사격조사의 의미 제시 순서 .....	99
<표 81> 형태 및 용법 설명 제시 여부 .....	102

# I. 서론

## 1. 연구 목적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 문화 이외에도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 여러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목적도 다양해졌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취업, 학업, 결혼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 문법 중에서도 문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는 교착어로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는 의미·기능이 다양하고, 의미·기능에 따라 다른 문법 요소와의 관계에서 제약이 많다. 또 공통된 용법으로 쓰이는 조사도 있다.<sup>1)</sup>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조사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조사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에서도 배우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며 사용할 때 오류가 많은 부분이다.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조사는 한국어 문법 중에서도 가장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 학습자들은 모국어를 이미 습득한 상태여서 제2언어로 배우는 한국어의 조사는 자신의 모국어에서 때로는

1) 민지혜(2012),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의 내용 제시 방안 연구 - ‘-에’와 ‘-로’를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

어순, 때로는 전치사, 때로는 부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학습 초기인 초급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조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초급부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조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안내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 어떤 조사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어떻게 제시하고 설명하는지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조사를 교육할 때 초급 교재의 활용 방향성에 대한 논의나 추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초급 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조사 연구에는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를 분석한 연구, 한국어 조사를 다른 언어와 대조 분석한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습득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연구, 조사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어 조사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조사 관련 선행 연구 중에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를 분석한 연구에는 이윤정(2002), 김정은(2004), 조련희(2006), 김정민(2007), 안용준(2009), 서민정(2011), 한염아(2011), 김성일(2012), 민지혜(2012), 장미영(2012), 정경자(2012), 이미지(2013), 임지영(2014), 장윤희(2015),

2) 강현화(2022), 『한국어 문법 교육론』, 소통, p.117.

진정(2015), 류이청(2018), 윤상진(201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4가지 연구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의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은 후 교재 개선·개발 방안을 제안한 연구에는 김정민(2007), 한염아(2011), 김성일(2012), 민지혜(2012), 정경자(2012), 이미지(2013), 진정(2015) 등이 있다.

김정민(2007)에서는 일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초급 교재 4종<sup>3)</sup>을 선정하여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교재의 문법 항목을 분석했다. 그리고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재 개발 원리와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염아(2011)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2종과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 2종<sup>4)</sup>을 대상으로 교수 학습 상황, 교재 외적 구성, 내적 구성, 조사의 구현 양상을 대비 분석하였다. 조사의 구현 양상 분석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선정된 조사와 조사 배열순서, 조사에 대한 문법 용어, 조사를 설명하는 기술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조사 교육을 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재 구성에 대해 앞서 살펴본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김성일(2012)에서는 경북 지역의 대학과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초급 한국어 교재 10종<sup>5)</sup>을 대상으로 보조사 ‘은/는’의 형태, 의미에 대한 제시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교재 분석을 통해 ‘은/는’의 제시, 설명에서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지혜(201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 사용에서 오류가 많은 원인이 한국어 교재의 조사 제시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

---

3) 김정민(2007)에서 선정된 분석 대상 교재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는 제외되었고,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ことばの架け橋』(2000),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2001), 『韓国語 初級』(2000), 『書いて覚える 初級 朝鮮語』(2002).

4)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2종: 경희대학교 『한국어 1』(2004),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2007),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 2종: 『표준 한국어 1』(1996), 『한국어 1』(2000).

5) 김성일(2012)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교재 10종은 모두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교재들이다. 계명대학교 『살아 있는 한국어 I』(2010), 건국대학교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I-I』(2011), 경희대학교 『혼자 공부하는 한국어 초급 I』(2010), 서울대학교 『한국어 I』(2011), 순천향대학교 『한국어 초급 I』(2009), 동국대학교 『함께 배워요 한국어 I』(2008),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2009), 인하대학교 『인하 한국어 I』(2009), 연세대학교 『100 시간 한국어 I』(2011).

사격조사 ‘에’와 ‘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 4종6)에서의 조사 제시 양상을 대조 분석했다. 그리고 교재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경자(2012)에서는 한국, 일본 양국에서 출판된 교재7)에서 한국어 조사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를 사용할 때 오류 비율이 높은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 ‘에서’, 보조사 ‘은/는’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조사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조사의 기술 내용을 구축해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미지(2013)에서는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제시 방식과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초급 한국어 교재 5종8)을 대상으로 ‘이/가’와 ‘은/는’의 제시 양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교재 분석 결과를 통해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가’와 ‘은/는’의 제시 방안을 논하였다.

진정(2015)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초·중급 한국어 교재9)를 대상으로 조사와 조사 결합형의 명칭, 제시 순서, 설명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았다. 그다음에 교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조사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통해 조사 항목 선정 및 조사 학습 순서를 제시한 연구에는 이윤정(2002), 조련희(2006), 임지영(2014), 장윤희(2015) 등이 있다.

- 
- 6) 경희대학교 『한국어 1~6』 (2008), 서울대학교 『한국어 1~4』 (2010),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 (2008),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1~6』 (2002).
  - 7) 정경자(2012)에서는 일본 4년제 대학 교양 과목에서 사용된 상위 5종의 초급 한국어 교재와 한국 주요 대학교(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일반 외국인들을 위해 출판한 초급 한국어 교재 5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일어판이 있는 경우에는 일어판을 분석했다.
  - 8)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1』 (2000),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 (2008),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1A』 (2008),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1-1』.
  - 9) 한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3종: 『이화 한국어 1-4』 (2010~2012), 『연세 한국어 1-4』 (2007~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1-2, 중급1-2』 (2010),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종: 『표준 한국어(수정판) 1-2』 (2011), 『기초 한국어(수정판) 1-4』 (2009), 『한국어(수정판) 1-3』 (2008), 『이화 한국어 1~3』 과 『연세 한국어 1~3』 은 중국어판으로 분석했다.



이윤정(2002)에서는 10종의 한국어 교재<sup>10)</sup>에서 제시된 조사와 조사의 풀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의 교육 내용을 등급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교재 분석 결과 나타난 조사의 빈도를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초급과 중급에서 배워야 할 조사 항목을 제시했다. 항목을 선정할 때 남윤진(2000)에 나온 균형 말뭉치 분석 결과를 참조했다. 고급은 이미 학습한 조사를 활용하는 단계로 보아 조사 항목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조련희(2006)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종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3종<sup>11)</sup>을 대상으로 조사의 학습 순서를 정리하고, 조사 배열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사용 빈도수와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용이성, 조사의 용법 등을 고려해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학습 순서를 제안했다.

임지영(2014)에서는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와 어미의 문법 항목 선정과 제시 순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터키어를 대조 분석했다.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 2단계’를 기준으로 터키에서 출판 중인 초급 한국어 교재<sup>12)</sup>를 분석했다. 대조 분석과 교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터키인 학습자가 초급에서 학습해야 할 조사와 어미의 항목을 새롭게 선정했다. 또 교재에서의 제시 순서를 제안했다.

장윤희(2015)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와 ‘한국어 교육과정(2012)’을 분석하고, 7종의 한국어 교재<sup>13)</sup>에 제시된 조사를 분석했다. 교육과정과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지는 조사가 부족함을 확인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용성, 교육적 가치, 난이도를 기준으로 새롭게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등급별로 제시했다. 더불어 실용성과 난이도에 따른 조사의 지도 방

10)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1~2, 중급 1~2』, 중급1~2, 고려대학교 『한국어 1~6』, 『한국어회화 1~6』, 서울대학교 『한국어 1~4』, 선문대학교 『한국어 초급 1~2, 중급 1~2, 고급 1~2』, 연세대학교 『한국어 1~6』,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1~2』, 국제진흥원 『한국어 1~6』, 문화관광부 『한국어 1~3』, 시사에듀케이션 『가나다 Korean for japanese 초급 1~2, 중급 1~2』.

11)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종: 『표준 한국어 1~3』(1996), 『한국어 1~4』(2000), 『초급한국어 상, 하』(2002),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종: 서울대학교 『한국어 1~3』(1993), 고려대학교 『한국어 1~2』(1991), 연세대학교 『한국어 1』(1996).

12) 『Korece 1-2』(2007), 『Trukler icin Korece 1』(2008), 『30 gunde Korece』(2013).

13) 『표준 한국어(초등) 1~2』(2013), 『표준 한국어(중등) 1~2』(2013), 『표준 한국어(고등) 1~2』(2013),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2010~2012), 『연세 한국어 1~6』(2007~2009), 『재밋는 한국어 1~6』(2008~2010), 『이화 한국어 1~6』(2010~2012), 『이화 한국어 1~2』는 영어판으로 분석했다.

향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의 제시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연구에는 김정은(2004), 서민정(2011), 장미영(2012), 윤상진(2018) 등이 있다.

김정은(2004)에서는 먼저 영어권, 일본어권 초·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조사 사용 오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한 교재<sup>14)</sup>를 대상으로 빈번한 오류가 나타나는 목적격조사 ‘을/를’, 주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의 교육 내용을 비교했다. 또 학습자들의 빈번한 조사 오용 양상과 교재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다음에 한국어 교재에서 ‘을/를’, ‘이/가’, ‘에’, ‘에서’가 어떤 순서로 제시되었는지 비교 분석했다. 교재를 비교 분석한 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조사 교육을 위한 제언을 간단히 제시했다.

서민정(2011)에서는 서울 소재 10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sup>15)</sup>를 대상으로 조사의 항목 선정, 조사의 제시 및 설명 방법 등을 비교 분석했다. 교재를 분석할 때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의 제시 방식, 설명 방식, 배열 방식 등이 적절한지 고찰하였다.

장미영(2012)에서는 초급 한국어 교재 4종<sup>16)</sup>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격조사, 보조조사, 접속조사가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했다. 교재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조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의 기술 방식은 무엇일지 논의하였다.

윤상진(2018)에서는 일반목적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했다. 먼저 일본의 한국어 학원에서 가장 많이

---

14) 김정은(2004)에서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판한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15) 건국대학교 『한국어 1~6』(2005~2010),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I~고급 II』(2000~2003),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6』(2008~2010), 동국대학교 『함께 배워요 한국어 1~4』(2008~2010),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1A~5B』(2008), 서울대학교 『한국어 1~4』(2000),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2004),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1998~200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4』(2007~2010).

16)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1998),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1A, 1B』(2008),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1, 1-2』(2007), 서울대학교 『한국어 1』(2000).

사용하는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 3종<sup>17)</sup>의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을 분석했다. 그 다음에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015)’,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2016)’의 문법 목록을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교재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 교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사 교육 방안을 제안한 연구에는 안용준(2009), 류이청(2018) 등이 있다.

안용준(2009)에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주격조사 ‘이/가’, 보조사 ‘은/는’의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가’와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했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 사전에 제시된 ‘이/가’와 ‘은/는’의 풀이를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급 한국어 교재 5종<sup>18)</sup>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기능, 설명, 제시 순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제안했다.

류이청(2018)에서는 먼저 조사 오류 양상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의 오류 유형 3가지를 파악했다. 그다음에 학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쓰기 자료에서 3가지 오류 유형을 찾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 3종<sup>19)</sup>을 대상으로 조사가 제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3가지 유형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한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조사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대학 기관 출판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계

17) 『できる韓国語 新装版 初級 I~II, 中級 I~II』(2015~2016), 『基礎から學ぶ韓国語講座 改訂版 初級, 中級』(2013~2015), 『NEW 가나다 KOREAN 改訂版 初級1~2, 中級1~2』(2010~2013).

18)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2』(2008~2009),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I~II』(2004),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1A~2B』(2008), 서울대학교 『한국어 1~2』(2002~2003),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2』(2007~2009).

19) 건국대학교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1』(2014),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1』(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2016).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기관에서 출판한 교재는 주로 출판한 대학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성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되 선정 교재를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로 한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한국어의 조사는 문장에서 문법 관계, 화자의 발화 의도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문장을 만들거나 이해하는 데 조사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그리고 조사는 그 수와 종류가 많고, 의미·기능이 다양하다.<sup>21)</sup>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초급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초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모국어에 익숙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조사는 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교재를 정하기 위해 먼저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이하 원미진 외(2020))<sup>22)</sup>에 나온 연구 결과를 참고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와 요구, 한국어 교육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변해온 한국어 교재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원미진 외(2020)는 국내외 한국어 교재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 1,400

20) 강현화(2022), 『한국어 문법 교육론』, 소통, pp.95, 119.

21) 강현화(2022), 위의 책, p.117.

22) 원미진 외(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여 개<sup>23)</sup>를 대상으로 교재 사용 현황, 교재 만족도 및 요구조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미진 외(2020)에서 교재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부분을 참고할 것이다.

원미진 외(2020)는 먼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기본 조사 후 교재 목록을 정리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도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419개 한국어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최종으로 응답한 한국어 교육 기관은 686개이다.

<표 1> 교재 사용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원미진 외, 2020)<sup>24)</sup>

구분	기관명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수	설문 응답 수	응답률
국내	초·중·고 한국어학급	155	120	7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170	81	48%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32	21	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6	118	55%
	대학 부설기관	155	133	86%
국외	세종학당	75	74	97%
	한글학교	330	46	14%
	국외 대학기관	286	93	33%
전체		<b>1,419</b>	<b>686</b>	48%

원미진 외(2020)에서는 686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응답한 답변을 바탕으로 교재 사용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보면 교재 분류명<sup>25)</sup>을 기준으로 99개의 교재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었다. 이중 빈도순으로 봤을 때 100개 이상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표준 한국어』, 『세종한국어』 4개로 분석되었다.

23) 국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초·중·고 한국어 학급, 대학교 부설기관 총 740여 개를 조사했다. 국외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 지역의 세종학당, 한글학교, 한국어 강좌 운영 대학 기관 650여 개를 조사했다.

24) 원미진 외(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p.51.

25) 원미진 외(2020)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사용 현황을 분석할 때 같은 교재명의 등급별 시리즈나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교재 시리즈는 하나의 교재명으로 묶어서 정리했다.

<표 2> 한국어 교재의 사용 기관 현황(원미진 외, 2020)<sup>26)</sup>

구분	교재 분류명	사용 기관 수
1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137
2	서울대 한국어	120
3	표준 한국어	117
4	세종한국어	113

4개의 교재 중에서 『표준 한국어』는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교재이다.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교육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표준 한국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한국어 교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준 한국어』 대신 『세종한국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즐거운/정확한 한국어』<sup>27)</sup>를 분석하고자 한다. 『즐거운/정확한 한국어』는 69개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된다고 분석되었다.

<표 3> 『즐거운/정확한 한국어』의 사용 기관 현황(원미진 외, 2020)<sup>28)</sup>

구분	교재 분류명	사용 기관 수
5	즐거운/정확한 한국어	69

원미진 외(2020)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선정한 4개의 교재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정확한 한국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정한 4개의 교재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출판돼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2020), 『서울대 한국어』(2013), 『세종한국어(증보판)』(2019), 『즐거운/정확한 한국어』(2019) 4종을 이 연구의 분석 교재로 최종 선정하였다.

『즐거운/정확한 한국어』의 경우 『즐거운 한국어』가 구어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즐거운 한국어』를 중심으로 어휘와 문법, 언어 기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즐거운 한국어』만을 분석 대상

26) 원미진 외(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pp.73-74, 88.

27) 원미진 외(2020)에 나온 교재 분류명을 그대로 썼다. 이는 『즐거운 한국어』와 『정확한 한국어』를 같이 언급한 것이다.

28) 원미진 외(2020), 위와 동일.

으로 정하였다.

<표 4> 초급 한국어 교재 분석 대상

교재명	초급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1A』, 『서울대 한국어 1B』, 『서울대 한국어 2A』, 『서울대 한국어 2B』
세종한국어	『세종한국어 1(증보판)』, 『세종한국어 2(증보판)』, 『세종한국어 3(증보판)』, 『세종한국어 4(증보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2』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4종의 초급 한국어 교재를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초급 교재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 2권이 있다. 『서울대 한국어』의 초급 교재에는 『서울대 한국어 1A』, 『서울대 한국어 1B』, 『서울대 한국어 2A』, 『서울대 한국어 2B』 4권이 있다.

『세종한국어(증보판)』의 초급 교재에는 『세종한국어 1(증보판)』, 『세종한국어 2(증보판)』, 『세종한국어 3(증보판)』, 『세종한국어 4(증보판)』 4권이 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의 초급 교재에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2』 2권이 있다.

분석 대상으로 정한 4종 12권의 초급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준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교재 분석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I 장 2절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의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을 살펴보겠다.

<표 5>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

선행 연구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
이윤정(2002)	- 조사의 출현

	- 조사의 풀이 내용
김정민(2007)	- 조사의 종류 - 조사의 제시 순서 - 조사의 명칭 제시 여부 - 조사의 설명 방식
한염아(2011)	- 교재에 선정된 조사 - 조사의 배열 순서 - 조사를 설명하는 문법 용어 - 조사에 대한 기술 방법
민지혜(2012)	- 교재의 조사 의미·기능 제시 대조 분석 - ‘문법’항과 ‘예문’에 제시된 조사의 의미·기능 대조 분석 - 출현빈도를 고려한 조사 의미·기능 제시 여부 대조 분석 - 조사 의미·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여부 분석
장미영(2012)	- 조사의 제시 순서 - 조사 설명의 기술 방식과 내용
정경자(2012)	- 조사의 종류 - 조사의 제시 순서 - 조사의 명칭에 대한 기술
임지영(2014)	- 교재에서 선정한 조사 항목 - 조사의 제시 순서
진정(2015)	- 조사의 명칭 - 조사의 제시 순서 - 조사의 설명 방법

이 연구는 초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교재 분석 기준으로 많이 선정한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이 연구의 교재 분석 기준을 정했다. <표 5>를 보면 선행 연구에서 조사에 대한 설명·기술 방식, 조사의 제시 순서를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정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조사의 종류, 교재에 제시된 조사를 분석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한 이 연구의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분석한다. 한국어 교재의 각 단원에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다. 학습 목표를 통해 각 단원에서의 교육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 목표는 교수·학습의 결과로 학습자들이 지녀야 할 지



식과 능력을 말한다.<sup>29)</sup> 각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는 학습 목표를 토대로 어떤 내용과 활동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학습 목표를 통해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 예상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sup>30)</sup>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조사로 무엇이 제시되었는지, 조사가 교재의 어느 단원에 제시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둘째,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분석한다. 교재에 제시된 조사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분류한다. 격조사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로 나눌 수 있다. 조사를 분류할 때 부사격조사와 보조사의 의미는 국립국어원(2005)<sup>31)</sup>, 양명희(2018)<sup>32)</sup>,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 제시된 ‘비교항목표 초급’<sup>33)</sup>을 참고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의 종류가 어떤 비중으로 제시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조사의 제시 순서를 분석한다.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가 어떤 순서로 제시되었는지 조사의 종류별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에 대해 분석한다. 교재에서 조사를 학습 목표로 제시할 때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조사의 형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더불어 조사의 용법 설명은 교재에 제시되었는지,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4가지 분석 기준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증보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4종의 초급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다.

29) 김영심(2016), 「《표준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 분석」, 『국어교육연구』,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65.

30) 위와 동일.

31)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 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32) 양명희 외(201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 조사 표현 어미』, 집문당.

3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비교항목표 초급(9-13)”,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do?curPage=9&srchKey=headword&searchGrade=01&srchKeyword=&srchChosung=&searchCategory=&mode=&searchTabMenu=tab1&id=&searchChineseYn=>, 2022.9.26.

##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조사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한국어 조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정한 4종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교재를 살펴볼 것이다.

### 1. 한국어 조사의 개념과 종류

Ⅲ장에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한국어 교육에서 바라보는 조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 이론서를 바탕으로 한국어 조사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했다.

#### 1.1. 한국어 조사의 개념

한국어는 교착어의 특징을 갖는 언어이다. 교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하여 문장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말한다.<sup>34)</sup> 그래서 한국어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발달하였다. 한국어에서 발달한 조사의 개념을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 교육 문법 이론서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34)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교착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3663&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3663&searchKeywordTo=3), 2022.10.15.

<표 6> 조사의 개념

사전	조사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sup>35)</sup>
이론서	조사의 개념
허용(2005)	주로 체언과 결합하여 선행 명사와 다른 문장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줌. <sup>36)</sup>
이주행(2017)	어떤 말에 연결되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여 주거나, 앞말과 뒷말을 접속하여 주는 구실을 함. <sup>37)</sup>
최대회·허원영(2019)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해 주는 품사 <sup>38)</sup>
강현화(2022)	자립형태소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주는 품사 <sup>39)</sup>

<표 6>에 제시한 조사의 정의 외에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조사의 특징을 “조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나 문장 뒤에 붙는다.”<sup>40)</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 교육 문법 이론서에서 정의한 조사의 개념을 보면 조사는 주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결합한다. 그리고 조사는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결합한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가 있다.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한 앞말이 어떤 자격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결합한 앞말에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가 있다. 셋째, 결합한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주는 조사가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조사는 주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붙어 그 말이 문장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는지 나타내주거나 그 말에 의미를 더해주거나 그 말과 뒷말 즉,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조사(助詞)”,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81442&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81442&searchKeywordTo=3), 2022.10.15.

36) 허용(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p.213.

37) 이주행(201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보고사, p.93.

38) 최대회·허원영(201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문법론』, 한국학술정보, p.117.

39) 강현화(2022), 『한국어 문법 교육론』, 소통, p.95.

40)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p.398.

## 1.2. 한국어 조사의 종류

한국어 조사는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는지 나타내주는 조사는 격조사이다. 격조사는 그 기능에 따라 나뉘보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가 있다.

주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주어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주격조사에는 ‘이/가’, ‘께서’, ‘에서’가 있다. ‘이/가’는 대표적인 주격조사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이’를 쓴다. ‘께서’는 ‘이/가’의 높임 표현이다.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쓴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차려 말할 때, 존중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께서’를 사용한다. 단체 혹은 기관의 명사가 주어일 때는 ‘에서’를 주격조사로 사용한다.

목적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목적어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목적격조사에는 ‘을/를’이 있다.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를’은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쓴다. 구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를’보다 축약형인 ‘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서술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서술격조사에는 ‘이다’가 있다. ‘이다’는 문장에서 ‘명사+이다’ 형태로 쓰여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조사와 달리 활용을 한다. ‘이다’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다’를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이’가 생략돼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용언으로 보기 어렵다<sup>41)</sup>.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다’가 체언에 붙어 서술어 기능을 하게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볼 것이다.

보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보어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국립국어원(2005)를 보면 조사 ‘가’와 ‘이’의 용법 세 번째에 “[‘되다’, ‘아니다’의 앞에 쓰여] 주어가 된 대상, 주어가 아닌 대상을 가리킨다.”<sup>42)</sup>가 있다. 이때 ‘되다’, ‘아니다’

41) 최대희·허원영(201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문법론』, 한국학술정보, p.121.

42)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 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pp.1, 824.

앞에 오는 ‘이/가’를 보격조사라고 한다. 보격조사 ‘이/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이’를 쓴다.

관형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관형격조사에는 ‘의’가 있다. ‘의’는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게 하는 데 사용된다.<sup>43)</sup> 그래서 관형격조사 ‘의’는 ‘소유주-피소유주’, ‘전체-부분’ 등 두 체언 사이의 여러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그리고 ‘의’는 인칭대명사 ‘나, 너, 저’와 결합하면 축약돼서 ‘내, 네, 제’로 쓰인다.

부사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부사격조사는 갖는 의미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에’, ‘에서’ 등이 있다. 부사격조사 ‘에’는 ‘장소’ 이외에도 ‘시간’, ‘단위’, ‘이유’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격조사 ‘에서’는 ‘장소’ 이외에 ‘출발점’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에게’, ‘한테’, ‘께’ 등은 체언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이 조사들을 여격조사라고 한다. ‘에게’, ‘한테’, ‘께’는 유정 명사와 결합한다. 그리고 ‘께’는 체언에 높임의 대상이 올 때 쓰이고, ‘한테’는 주로 구어에 쓰인다. 공동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와/과’, ‘(이)랑’, ‘하고’ 등이 있다. ‘와/과’, ‘(이)랑’은 이 형태가 있는 조사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와’, ‘랑’,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과’, ‘이랑’을 쓴다. 그리고 ‘(이)랑’과 ‘하고’는 주로 구어에서 쓰인다.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와/과’, ‘보다’, ‘같이’, ‘처럼’, ‘만큼’ 등이 있다. ‘보다’는 차등 비교를 나타내고, ‘같이’, ‘처럼’, ‘만큼’ 등은 동등 비교를 나타낸다. ‘와/과’는 뒤에 오는 서술어에 따라 비교의 의미가 달라진다. ‘와/과’ 뒤에 ‘비슷하다’와 같은 서술어가 쓰이면 동등 비교를 의미하고, ‘다르다’와 같은 서술어가 쓰이면 차등 비교를 의미한다.

수단이나 도구, 재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으)로’, ‘(으)로써’가 있다. ‘로’, ‘로써’는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쓴다. 그리고 ‘ㄹ’ 이외의 받침이 있는 말에는 ‘으로’, ‘으로써’를 쓴다. ‘(으)로’는 ‘방향’, ‘변화’, ‘자격’, ‘이유’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으)로써’도 있다.

43)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p.415.

44) 이주행(201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보고사, p.100.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고’, ‘(이)라고’ 등이 있다.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이)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직접 인용을 나타낼 때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라고’,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라고’를 쓴다. 호격조사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이다. 호격조사에는 대표적으로 ‘아’와 ‘야’가 있다. ‘아/야’는 친구 사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야’를 쓴다.

둘째, 체언에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는 보조사이다. 보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 조사, 어미 등에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조사는 격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부사격 자리에 두루 쓰인다. 보조사는 의미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보조사 ‘은/는’은 ‘주제’, ‘대조’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은’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는’은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쓰인다.

‘배타’나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에는 ‘만’, ‘밖에’, ‘뿐’이 있다. ‘만’, ‘밖에’, ‘뿐’은 의미가 유사하다. ‘오직’의 의미를 가져 앞말의 대상 외에 다른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sup>45)</sup> ‘만’은 ‘여럿 중에 어느 것 하나에 한정함’<sup>46)</sup>을 의미한다. ‘밖에’는 ‘그것 말고는 없음’을 뜻한다. ‘밖에’ 뒤에는 반드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sup>47)</sup> ‘뿐’은 ‘그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음’<sup>48)</sup>을 의미한다. ‘뿐’은 서술어 ‘이다’, ‘아니다’와만 결합해 사용된다.

‘포함’이나 ‘더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에는 ‘도’, ‘조차’, ‘마저’, ‘까지’ 등이 있다. ‘조차’와 ‘마저’ 뒤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가 온다. 그리고 두 조사는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 주로 사용된다.<sup>49)</sup> 반면, ‘도’와 ‘까지’는 상황의 제약 없이 긍정과 부정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보조사 ‘까지’는 ‘범위의 끝’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인 ‘범위의 시작’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 ‘부터’가 쓰인다.

‘빠짐없이’를 나타내는 보조사에는 ‘마다’가 있다.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의미를 나타낸다. ‘마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함께 쓰여 ‘-에 한 번

45)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p.436.

46) 이주행(201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보고사, p.116.

47) 이주행(2017), 위의 책, p.117.

48) 허용(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p.226.

49) 국립국어원(2005), 위의 책, p.437.

씩'의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에는 '(이)나', '(이)든지', '(이)나마', '(이)라도' 등이 있다. '(이)나', '(이)든지', '(이)나마', '(이)라도'는 앞에 오는 명사의 환경에 따라 이형태가 있는 조사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이나', '이든지', '이나마', '이라도',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나', '든지', '나마', '라도'를 쓴다.

'(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으나 현재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리고 '수량이 예상보다 많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이)나'는 접속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든지'는 여럿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이)나마'와 '(이)라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sup>50)</sup>

셋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조사는 접속조사이다. 접속조사는 두 체언을 동등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접속조사에는 '와/과', '하고', '(이)랑' 등이 있다. '와/과'는 문어와 구어에서 두루 사용된다. 반면, '하고'와 '(이)랑'은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접속조사는 연결되는 말이 많을 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와/과'는 연결되는 마지막 말에 쓰지 못하지만, '하고'와 '(이)랑'은 마지막 말에도 쓸 수 있다.

## 2. 초급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재는 다양한 기준으로 교재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 학습자의 수준을 기준으로 교재를 분류하면 초급 교재, 중급 교재, 고급 교재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 구분으로 보면 초급은 1급, 2급, 중급은 3급, 4급, 고급은 5급, 6급에 해당한다. 즉, 초급 교재는 가장 기초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교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정한 4종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교재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50)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p.439.

## 2.1.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재

국내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내 대학 기관, 초·중·고 한국어 학급,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있다. 국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중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교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 1, 2』(이하 『한국어 표준 교재 1, 2』)를 사용하고 있다.<sup>51)</sup> 『한국어 표준 교재 1, 2』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된 교재이다. 두 권의 교재는 학습자의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제외하고 각 기관의 초급 교재를 살펴볼 것이다.

###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어 교재

법무부에서는 2009년부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경제, 사회, 법률 등의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sup>52)</sup>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한국 사회 이해’를 교육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은 0단계(기초 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교재로는 2015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51) 원미진 외(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p.9.

52)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기본방향”, [https://www.socinet.go.kr/socinet/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https://www.socinet.go.kr/socinet/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 2022.9.3.



정책본부에서 출판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사용되었다. 이후 2020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한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기본 교재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하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기초편 교재 1권,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2권, 총 5권으로 구성되어<sup>53)</sup>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에서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1단계는 ‘초급 1’ 과정이고, 2단계는 ‘초급 2’ 과정이다. 1, 2단계 초급 과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초급 교재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가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은 1급 수준,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는 2급 수준에 해당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2』는 초급 단계의 교육 시간인 100시간에 맞춰 구성되었다. 그리고 ‘초급 1’, ‘초급 2’ 수준의 익힘책도 같이 출간돼 이민자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보완할 수 있다.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기존에 많이 있던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형태는 물론 남성 결혼 이민자 가정, 외국인 1인 가정 등의 형태가 생기면서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2017년 다문화 가정의 남녀 성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교재를 2018년에 시범 적용하고, 2019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이하 『즐거운 한국어』) 초급 2권, 중급 2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이하 『정확한 한국어』) 초급 2권, 중급 2권을 출판하였다. 『즐거운 한국어』의 초급 교재에는 1급 수준의 『즐거운 한국어 초급 1』과 2급 수준의 『즐거운 한국어 초급 2』가 있다. 그리고 『정확한 한국어』의

53) 이미혜 외(2020),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도서출판 하우, p.3.

초급 교재에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 1』 과 『정확한 한국어 초급 2』 가 있다.

『즐거운 한국어』와 『정확한 한국어』는 2010년에 출판된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이전 교재와는 구성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교재를 성격이 다른 두 권으로 나눈 것이다.<sup>54)</sup> 『즐거운 한국어』는 구어 위주의 과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정확한 한국어』는 문어 위주의 형태 연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sup>55)</sup> 성격이 다른 두 교재를 보면 『즐거운 한국어』를 중심으로 어휘와 문법, 언어 기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확한 한국어』에서는 『즐거운 한국어』에서 배운 내용의 연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3) 국내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국내 대학 기관 중 31개의 대학 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출판해 사용하고 있다.<sup>56)</sup> 원미진 외(2020)에 나온 ‘국내 대학기관 교재 현황’ 표를 보면 대학 기관들 모두 기본적으로 초급 교재를 출판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31개 대학 기관의 교재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두 대학 기관의 교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서울대 한국어』에 대해 알아보겠다. 『서울대 한국어』는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성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개발한 정규 과정용(약 200시간) 한국어 교재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57)</sup> 『서울대 한국어』는 1급부터 6급까지 사용할 수 있는 6단계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단계별로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이하 『서울대 한국어 SB』)과 『서울대 한국어 Workbook』(이하 『서울대 한국어 WB』)이 있다. 두 교재는 A, B 분권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 한국어 SB』의 초급 교재는 1급 수준의 『서울대 한국어 1A SB』,

54) 이선웅 외(2019),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도서출판 하우, p.3.

55) 위와 동일.

56) 원미진 외(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p.11.

57)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1A Student's Book』, 투판즈, p.4.

『서울대 한국어 1B SB』, 2급 수준의 『서울대 한국어 2A SB』, 『서울대 한국어 2B SB』 총 4권이 있다. 『서울대 한국어 WB』도 『서울대 한국어 SB』와 같이 초급 교재로 ‘1A, 1B’, ‘2A, 2B’ 총 4권이 있다.

『서울대 한국어 SB』은 통합형 주교재이다. 학습자들이 네 가지 언어 능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말하기를 중심으로 어휘와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WB』은 학습자들이 『서울대 한국어 SB』에서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복습 단원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서울대 한국어』는 English version으로 집필돼 기본적으로 영어 번역이 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새 연세한국어』<sup>58)</sup>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연세 한국어』 뒤를 이를 새로운 교재로 『새 연세한국어』를 기획하고 2018년부터 출판했다. 『새 연세한국어』는 영역별 교재로, ‘어휘와 문법’ 교재, ‘말하기와 쓰기’ 교재, ‘듣기와 읽기’ 교재로 구성되었다. 세 종류의 『새 연세한국어』 시리즈는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 여건이나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sup>59)</sup>

이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교재 중 조사를 학습할 수 있는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새 연세한국어』 시리즈를 살펴보겠다.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준에 따라 가장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주요 어휘와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sup>60)</sup> 교재는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단계마다 ‘1’, ‘2’ 두 권의 교재로 나뉘어서 출판되었다.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초급 교재에는 1급 수준의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1』,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2』가 있고, 2급 수준의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2-1』,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2-2』가 있다.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초급 교재는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58) 원미진 외(2020)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연세 한국어』가 『즐거움/정확한 한국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연세 한국어』 시리즈에서 가장 최근에 출판된 『새 연세한국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5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8),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1(영어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p.iii.

60) 위와 동일.

스페인어판 교재가 출판되었다.

분권으로 출판된 한 권의 교재에는 10개의 과가 있다. 각 과는 2개의 항씩 총 20개의 항으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항에는 문법이 2개씩 제시돼 교재 한 권당 40개의 문법이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2』는 총 20개의 과가 있고, 40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문법은 80개 정도씩 제시되었다.

#### (4) 초·중·고 한국어 학급 한국어 교재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학생들은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령기 학생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표준 한국어』를 개발해 출판하였다. 이후 2017년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개정한 교육과정이 적용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해 출판하였다.

2019년 2월에 새롭게 출판된 『표준 한국어』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1권,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6권이 있다. 이 교재들은 2019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한국어 학급에서 사용 중이다. 『표준 한국어』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도구 한국어’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 한국어’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그리고 ‘학습 도구 한국어’는 교과 학습 적용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구성된 교재이다.<sup>61)</sup>

‘학습 도구 한국어’는 학년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를 중심으로 『표준 한국어』의 초급 교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 ‘의사소통 한국어’는 저학년용(1~4) 4권, 고학년용(1~4) 4권이 있다. ‘1’부터 ‘4’까지 4권 중에 ‘1’과 ‘2’가 초급 수준의 교재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초급 교재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1』,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2』,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

61) 이병규 외(2019),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1』, 마리북스, p.14.

어 고학년 의사소통 1』,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고학년 의사소통 2』가 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 ‘의사소통 한국어’는 ‘1’부터 ‘4’까지 4권이 있다. 이 중 ‘1’과 ‘2’가 초급 수준에 해당한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초급 교재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2』가 있다. 2020년부터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익힘책도 『의사소통 한국어』 초급 교재와 같은 수준으로 출판돼 사용되고 있다.

## 2.2.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재

국외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에는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등이 있다. 국외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중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교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1)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세종학당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이다.<sup>62)</sup> 세종학당은 2007년 처음 개설할 당시 전 세계 3개국 13개소에서 1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로 늘어났다. 그리고 연간 수강생은 2021년 81,476명으로 약 110배 증가했다.<sup>63)</sup>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세종학당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종학당용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했다.<sup>64)</sup> 이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세종학당 표준 교재를 개발하였고, 2013년에 『세종한국어』가 출판되었다. 2019년에는 『세종한국어』 증보판이 나왔다. 『세종한국어』는 통합 한국어 교재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62) 국립국어원(2019), 『세종한국어 1(증보판)』, 도서출판 하우, p.3.

63) 정유철, 「‘한국어로 꿈을 이루는 곳’ 세종학당을 늘려 한류 열풍 가속화한다」, 『K스피릿』, 2022.6.16,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08>, 2022.8.12.

64) 국립국어원(2019), 위와 동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65)</sup>

『세종한국어』는 『세종한국어 1』부터 『세종한국어 8』까지 8권이 출판되었다. 『세종한국어 1』부터 『세종한국어 4』까지는 초급 교재이고, 『세종한국어 5』부터 『세종한국어 8』까지는 중급 교재이다. 초급 교재에서 1급 수준에 해당하는 교재는 『세종한국어 1』, 『세종한국어 2』이다. 그리고 2급 수준에 해당하는 교재는 『세종한국어 3』, 『세종한국어 4』이다. 4권의 초급 교재에는 익힘책도 같이 출판되었다. 익힘책은 『세종한국어』에서 배운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세종한국어 1』과 『세종한국어 2』는 다국어 번역판이 전자책(E-Book)으로 나왔다. ‘누리-세종학당’<sup>66)</sup>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몽골어 등 총 17개국 언어로 번역판 전자책이 제공되고 있다. 이중 수요가 많은 영어판과 중국어판은 종이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세종한국어』 번역판은 그 나라 언어로 설명된 ‘일러두기’, ‘단원 구성’, 부록의 ‘문법 설명’을 제외하면 한국어 설명 아래 번역이 제시되는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었다.

## (2) 한글학교 한국어 교재

한글학교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발간한 교재인 『한글학교 한국어』, 『맞춤 한국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등을 사용한다. 『한글학교 한국어』, 『맞춤 한국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된 교재이다. 『한글학교 한국어』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재외동포 어린이들, 『맞춤 한국어』는 한글학교가 있는 해당 언어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3종의 한국어 교재는 연령별, 학년별에 맞춰 ‘1’부터 ‘6’까지의 교재가 출판되었다. 『맞춤 한국어』는 영어, 베트남어, 불어, 중국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돼 출판되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한국어 이외에 영어, 일본어 번역판이

65) 국립국어원(2019), 『세종한국어 1(중보판)』, 도서출판 하우, p.8.

66) 한국어 학습자와 교원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누리집(국립국어원(2019), 위의 책, p.9).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종의 교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3학년도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 수요조사 안내문’<sup>67)</sup>에 나온 ‘학습 수준별 대조표’를 참고하였다.

‘학습 수준별 대조표’를 보면 초급 수준은 ‘초급 1, 2, 3’으로 구분돼 있다. 『한글학교 한국어』, 『맞춤 한국어』에서는 ‘1’부터 ‘6’까지 모두 초급 교재이다. 두 교재의 ‘1~2’는 ‘초급 1’, ‘3~4’는 ‘초급 2’, ‘5~6’은 ‘초급 3’에 해당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에서는 ‘1’부터 ‘3’까지가 초급 교재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의 경우 단계별 교재가 ‘1’, ‘2’ 두 권으로 구성돼 ‘1-1, 1-2’가 ‘초급 1’, ‘2-1, 2-2’가 ‘초급 2’, ‘3-1, 3-2’가 ‘초급 3’에 해당한다.

---

67) 뉴욕한국교육원, “2023년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2022. 9.21, <https://www.kecny.org/post/2023%EB%85%84-%EC%9E%AC%EC%99%B8%EB%8F%99%ED%8F%AC%EC%9A%A9-%EA%B5%90%EA%B3%BC%EC%9A%A9-%EB%8F%84%EC%84%9C-%EB%B0%8F-%EA%B5%90%EC%9E%AC-%EB%B3%B4%EA%B8%89%EC%9D%84-%EC%9C%84%ED%95%9C-%EC%88%98%EC%9A%94%EC%A1%B0%EC%82%AC-%EC%95%88%EB%82%B4>, 2022.11.20.

### Ⅲ. 한국어 교재별 조사 제시 양상

이번 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초급 한국어 교재 4종의 조사 제시 양상을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 장 3절에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분석한다. 둘째,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의 종류가 어떤 비중으로 제시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조사의 제시 순서를 분석한다. 넷째,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에 대해 분석한다. 교재에서 조사를 학습 목표로 제시할 때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조사의 형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더불어 조사의 용법 설명은 교재에 제시되었는지,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교재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기본 교재인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초급 교재 2권을 분석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초급 교재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가 있다.

##### 1.1. 교재 구성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는 1과부터 18과까지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9과와 18과가 끝난 후에는 학습자들이 복습할 수 있게 ‘복습 1, 2’가 제시되었다. 교재 부록에는 ‘모범 답안’, ‘듣기 지문’, ‘색인’이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2』의 한 단원은 ‘단원 도입’, ‘어휘와 문법 1,



2’,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문화와 정보’로 구성되었다. 단원 마지막에는 ‘발음’과 ‘배운 어휘 확인’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조사가 제시되는 ‘어휘와 문법’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겠다. ‘단원의 도입’은 단원의 제목, 주제,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고, 주제와 관련된 삽화와 질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sup>68)</sup> ‘어휘와 문법’은 학습자들이 단원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이 한쪽씩 제시된 부분이다. 학습 내용 간의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sup>69)</sup> 어휘와 문법이 묶어서 제시되었다.

‘어휘와 문법’에서 ‘문법’은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목표 문법<sup>70)</sup>이 제시된 부분이다. ‘문법’에서는 학습자들이 문법의 형태, 의미·용법을 알 수 있게 상황 그림과 예문, 예시가 제시되었다. 예문에 나온 목표 문법은 진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활동이 있다.

## 1.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조사 제시 양상

<그림 1> 『한국어와 한국문화』 ‘어휘와 문법’의 ‘문법’



<그림 1>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어휘와 문법’에서 ‘문법’의 일부이다. 이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교재의 조사

68) 이미혜 외(2020),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도서출판 하우, p.4.

69) 위와 동일.

70)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 문법이라는 점에서 ‘학습 목표 문법’이라고 봤고 이를 줄여서 ‘목표 문법’이라고 칭했다.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는 각 단원의 ‘어휘와 문법’에서 ‘문법’이 나오는 부분의 제일 위에 제목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2』의 1과부터 18과까지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살펴보겠다.

<표 7>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sup>71)</sup>
1과 안녕하세요?	인사와 소개	명이예요/예요
		명은/는
2과 방에 책상이 있어요	사물	명이/가
		명에 있어요
3과 한국어를 배워요	일상생활	명을/를
4과 라흐만 씨가 식당에 가요	장소	명에 가다
		명에서
5과 오늘은 5월 5일이에요	날짜와 요일	명에
		명이/가 아니에요
6과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요	하루 일과	명부터 ~ 명까지
8과 칫솔하고 치약을 삽니다	쇼핑	명하고 명
9과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주말	명도
11과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꽃을 드려요	특별한 날	명에게/한테/께
13과 버스로 공항에 가요	교통	명으로(수단)
15과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날씨	명보다
17과 사진을 찍지 마세요	공공장소	명으로(방향)

<표 8>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	----	-------

71) 교재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목표 문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목표 문법’으로 명시했다.

1과 제 고향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향	명이라고 하다
3과 이걸로 한번 입어 보세요	물건 사기	명이나
17과 잠을 꼭 자면 좋겠어요	건강	명에

<표 7>을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의 12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 2과는 ‘어휘와 문법 1, 2’에서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1과는 ‘인사와 소개’가 주제이다. ‘어휘와 문법 1’에서는 ‘이에요/예요’가 제시되었고, ‘어휘와 문법 2’에서는 ‘은/는’이 제시되었다. 2과는 ‘사물’을 주제로 한다. ‘어휘와 문법 1’에서 ‘이/가’가 제시되었고, ‘어휘와 문법 2’에서 조사 ‘에’가 ‘있어요’와 제시되었다. 3과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며, ‘어휘와 문법 2’에서 ‘을/를’이 제시되었다.

4과, 5과는 ‘어휘와 문법 1, 2’에서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4과는 ‘장소’를 주제로 한다. ‘어휘와 문법 1’에서는 조사 ‘에’가 ‘가다’와 제시되었고, ‘어휘와 문법 2’에서는 ‘에서’가 제시되었다. 5과는 ‘날짜와 요일’이 주제이다. ‘어휘와 문법 1’에서는 ‘에’가 제시되었고, ‘어휘와 문법 2’에서는 조사 ‘이/가’가 ‘아니예요’와 제시되었다. 6과는 ‘하루 일과’가 주제이며, ‘어휘와 문법 1’에서 조사 ‘부터’와 ‘까지’가 같이 제시되었다.

8과는 ‘쇼핑’이 주제이고, ‘어휘와 문법 1’에서 ‘하고’가 제시되었다. 9과는 ‘주말’을 주제로 하며, ‘어휘와 문법 2’에서 ‘도’가 제시되었다. 11과는 ‘특별한 날’을 주제로 하고, ‘어휘와 문법 1’에서 ‘에게/한테/께’가 제시되었다. 13과는 ‘교통’이 주제이며, ‘어휘와 문법 1’에서 ‘으로’가 제시되었다. 15과는 ‘날씨’가 주제이고, ‘어휘와 문법 2’에서 ‘보다’가 제시되었다. 17과는 ‘공공장소’를 주제로 하며, ‘어휘와 문법 1’에서 ‘으로’가 제시되었다.

<표 8>을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의 3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는 ‘고향’을 주제로 하고, ‘어휘와 문법 1’에서 조사 ‘이라고’가 ‘하다’와 제시되었다. 3과는 ‘물건 사기’가 주제이며, ‘어휘와 문법 1’에서 ‘이나’가 제시되었다. 17과는 ‘건강’이 주제이고, ‘어휘와 문법 2’에서 ‘에’가 제시되었다.

<표 9>를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에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이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9>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단원	주제	목표 문법
2과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요	집안일	동-은 다음에
8과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한국어 수업	동-기 전에
		동-기로 하다
10과 시청 옆에 있는데 가까워요	길 안내	동 형-기 때문에
12과 실수를 자주하는 편이에요	실수와 경험	동-은 적이 있다
		동 형-는 편이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표현을 보면 조사 ‘에’, ‘로’, ‘이’, ‘이다’가 표현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교재에서 표현의 구성보다 표현이 쓰이는 상황, 의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은 조사를 분석할 때 제외하였다.

## (2) 조사의 종류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들을 제시된 형태와 순서 상관없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구분해 표로 정리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표 10>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1과	2과	3과	4과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서술격조사	이에요/예요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장소)		에(목적지) 에서(장소)
	호격조사				

보조사		은/는(주제)			
접속조사					
단원		5과	6과	8과	9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시간)			
	호격조사				
보조사			부터, 까지		도
접속조사				하고	
단원		11과	13과	15과	17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	으로(수단)	보다	으로(방향)
	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표 11>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1과	3과	17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이)라고		에(목적)	
	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나		

<표 10>을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의 1과에서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이에요/예요’와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제시되었다. 2과에는 주격조사 ‘이/가’와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3과에 제시된 ‘을/를’은 목적격조사이다. 4과에는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가 제시되었다. ‘에’는 ‘목적지’, ‘에서’는 ‘장소’를 의미한다. 5과에서는 보격조사 ‘이/가’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6과에는 보조사 ‘부터’, ‘까지’가 제시되었다. ‘부터’는 ‘시작점’, ‘까지’는 ‘범위의 끝’을 의미한다. 8과에서는 접속조사 ‘하고’가 제시되었고, 9과에서는 ‘더함’을 의미하는 보조사 ‘도’가 제시되었다. 11과에는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가 제시되었다. ‘에게/한테/께’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13과에는 ‘수단’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으로’가 제시되었다.

15과에서는 부사격조사 ‘보다’가 제시되었다. ‘보다’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17과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으로’가 제시되었다. <표 11>을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의 1과에서는 ‘직접 인용’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이라고’가 제시되었다. 3과에는 접속조사 ‘이나’가 제시되었고, 17과에는 ‘목적’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격조사가 가장 큰 비중으로 교재에서 다루지고 있다. 격조사 중 부사격조사가 학습 목표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부사격조사 다음으로는 보조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조사의 제시 순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제시 순서를 분석할 때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을 초급 교재의 초반,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를 초급 교재의 후반이라고 보았다. 초급 교재 초반에는 ‘이에요/예요’부터 ‘으로(방향)’까지 제시되었고, 후반에는 ‘이라고’부터 ‘에(목적)’까지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제시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제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요/예요 ☞ 은/는(주제) ☞ 이/가(주격조사) ☞ 에(장소) ☞ 을/를  
☞ 에(목적지) ☞ 에서(장소) ☞ 에(시간) ☞ 이/가(보격조사) ☞ 부  
터, 까지 ☞ 하고(접속조사) ☞ 도 ☞ 에게/한테/께 ☞ 으로(수단) ☞  
보다 ☞ 으로(방향) ☞ 이라고 ☞ 이나(접속조사) ☞ 에(목적)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초급 교재 초반에 조사가 더 많이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교재에서 가장 먼저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가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보조사 ‘은/는’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격조사가 초반에 많이 제시되고 그다음에 보조사, 접속조사가 제시되었다.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 목적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서’, 보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 ‘으로’, ‘이라고’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사격조사 ‘에’와 ‘으로’는 다른 의미로 여러 번 제시되고 있다. 두 조사의 의미 제시 순서를 보면 부사격조사 ‘에’는 ‘장소’의 의미가 먼저 제시되었다. ‘장소’의 의미 다음으로 ‘목적지’, ‘시간’, ‘목적’의 의미 순으로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으로’는 ‘수단’의 의미가 먼저 제시되고, 다음으로 ‘방향’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보조사는 초급 교재의 초반에만 제시되었으며, ‘은/는’, ‘부터, 까지’, ‘도’, ‘보다’ 순으로 제시되었다. 접속조사는 ‘하고’, ‘이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하고’는 초급 교재 초반에, ‘이나’는 초급 교재 후반에 제시되었다.

#### (4)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학습 목표로 조사가 제시된 형태는 네 가지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가 단독 형태로 제시된 경우, 둘째,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셋째,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넷째, 서술격조사 ‘이다’는 ‘이다’와 결합한 어미 형태로 제시되었다.

<표 12>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조사 제시 형태

조사 제시 형태	형태
조사 단독 제시	명은/는, 명이/가, 명을/를, 명에서, 명에, 명하고 명, 명도, 명에게/한테/께, 명으로(수단), 명보다, 명으로(방향), 명이나
서술어와 함께 제시	명에 있어요, 명에 가다, 명이/가 아니에요, 명이 라고 하다
조사끼리 제시	명부터 ~ 명까지

‘이다’와 결합한 어미 제시 | 명이에요/예요

<표 12>를 보면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될 때 조사의 결합 환경이 나타난다. ‘명조사’ 형태로 제시돼 학습자들이 조사가 명사 뒤에 결합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접속조사 ‘하고’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여서 학습 목표에 제시될 때 ‘명하고 명’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와 다르게 접속조사 ‘이나’는 학습 목표에서 ‘명이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가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는 제시된 형태 구성으로 조사가 자주 쓰인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해 이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이형태가 빗금으로 구분돼 같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형태가 있는 조사 중에 부사격조사 ‘으로’, ‘이라고’, 접속조사 ‘이나’는 학습 목표로 제시된 형태에서 이형태가 명시되지 않았다. ‘에게/한테/께’도 빗금으로 구분돼 제시되었다. ‘에게’, ‘한테’, ‘께’는 같은 의미지만 앞에 오는 명사나 쓰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조사여서 함께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의 의미·용법을 보여주는 예문 아래에는 조사의 형태 예시를 ‘명사 → 명사+조사’로 도식화하여 제시한 부분이 있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앞에 명시하고 옆 부분에 예를 제시해 조사가 명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준다.

<표 13>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 예시 1

목표 문법	형태 예시
명은/는	⇨ 은 • 직업 → 직업은 • 이름 → 이름은 ⇨ 는 • 저 → 저는 • 안젤라 → 안젤라는
명에 있어요	⇨ 에 있어요 • 방 → 방에 있어요 • 거실 → 거실에 있어요 • 학교 → 학교에 있어요 • 기숙사 → 기숙사에 있어요
명에서	⇨ 에서 • 시장 → 시장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화점 → 백화점에서</li> <li>• 학교 → 학교에서</li> <li>• 카페 → 카페에서</li> </ul>
--	---

<표 13>을 보면 보조사 ‘은/는’처럼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각각의 형태에 2개의 예시가 제시되었다. 예를 통해 명사가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이형태가 결합하는지 보여준다. 부사격조사 ‘에’, ‘에서’와 같이 이형태가 없는 조사는 4개의 예시가 제시되었다. ‘에 있어요’처럼 조사가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명사와 결합해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 예시 2

목표 문법	형태 예시
명하고 명	⇨ 하고 • 빵, 우유 → 빵하고 우유 • 커피, 케이크 → 커피하고 케이크
명보다	⇨ 보다 • 작년 → 작년보다 • 러시아 → 러시아보다
명부터 ~ 명까지	⇨ 부터 ~ 까지 • 한 시~두 시 → 한 시부터 두 시까지 • 월요일~금요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1월~3월 → 1월부터 3월까지
명이나	⇨ 이나 • 샌들 → 샌들이나 슬리퍼 • 가방 → 가방이나 모자 ⇨ 나 • 커피 → 커피나 주스 • 운동화 → 운동화나 구두

<표 14>를 보면 접속조사 ‘하고’, 보조사 ‘보다’, ‘부터~까지’는 제시된 예시의 개수가 4개의 예시가 제시된 다른 조사와 다르다. 접속조사 ‘하고’의 형태 예시를 보면 2개의 명사가 제시되고, 제시된 두 명사가 ‘하고’를 통해 연결된 모습이 제시되었다. 이런 예시가 2번 나온다. 접속조사 ‘이나’는 접속조사 ‘하고’와는 약간 다르게 예시가 도식화돼 제시되었다. ‘이나’의 예시를 보면 조사 결합 전에는 명사가 하나만 제시되고, 그 명사와 다른 명사가 ‘이나’나 ‘나’와 결합한 모습이 제

시되었다. 학습자들은 도식화된 예시를 통해 명사와 명사를 접속조사가 어떻게 이어주는지 알 수 있다.

보조사 ‘보다’도 형태 예시가 2개 제시되었다. ‘부터~까지’는 ‘부터’, ‘까지’가 같이 쓰이는 형태로 3개의 예시가 제시되었다. 예시에는 ‘시간’, ‘요일’, ‘월’ 명사가 ‘부터~까지’와 결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예시를 보고 ‘부터~까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는 형태 예시를 통해 조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지도 알 수 있다.

<표 15>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 예시 3

목표 문법	형태 예시
명 <sup>ㄹ</sup> 에게/한테/께	⇨ 에게/한테 • 동생 → 동생에게/동생한테 • 친구 → 친구에게/친구한테 ⇨ 께 • 선생님 → 선생님께 • 할머니 → 할머니께
명 <sup>ㄹ</sup> 으로(수단)	⇨ 으로 • 여객선 → 여객선으로 ⇨ 로 • 비행기 → 비행기로 • 버스 → 버스로 ★지하철 → 지하철로
명 <sup>ㄹ</sup> 으로(방향)	⇨ 으로 • 공원 → 공원으로 • 3층 → 3층으로 ⇨ 로 • 아래 → 아래로 • 교실 → 교실로

<표 15>를 보면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의 형태 예시에서는 ‘에게/한테’와 ‘께’가 어떤 명사와 쓰이는지 나타난다. ‘동생’, ‘친구’와 같이 화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동갑인 사람을 말할 때는 ‘에게/한테’를 쓰고, ‘선생님’, ‘할머니’처럼 화자보다 윗사람을 말할 때는 ‘께’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사격조사 ‘으로(수단)’, ‘으로(방향)’의 형태 예시를 보면 조사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이 제시되었다. 예시에서 ‘ㄹ’받침이 있는 명사는 받침이 없는 명사와 같이 제시돼 ‘로’와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들은 예를 통해 ‘ㄹ’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는 받침이 있는 명사와 결합하는 ‘으로’가 아니라 ‘로’를 써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으로(수단)’, ‘으로(방향)’의 예시를 보면 제시된 예의 개수와 별표 표시 여부의 차이가 있다. ‘으로(수단)’의 예시에서는 ‘으로’에 해당하는 예 1개, ‘로’에 해당하는 예 3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ㄹ’받침이 있는 명사 예 앞에 별표 표시가 있다. 반면 ‘으로(방향)’의 예시에서는 ‘으로’에 해당하는 예 2개, ‘로’에 해당하는 예 2개가 제시되었고, ‘ㄹ’받침이 있는 명사 예 앞에는 별표 표시가 없다.

<표 16>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T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단원	목표 문법	Tip
8과	동 형-습니다, -습니까?	명입니다, 명입니까? 책 → 책입니다, 책입니까? 시계 → 시계입니다, 시계입니까?
10과	동 형-지만	명사는 ‘명이지만, 명지만’을 사용해요.
15과	동 형-네요	명이네요 학생 → 학생이네요 커피 → 커피네요
18과	동 형-지요?	명이지요? 회사원 → 회사원이지요? 학교 → 학교지요?
18과	동 형-는데(대조)	명인데 학생 → 학생인데 이집트 → 이집트인데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		
단원	목표 문법	Tip
7과	동 형-으니까	‘명이다’는 ‘명이니까’로 사용해요.
10과	동 형-는데	‘명이다’는 ‘명인데’를 사용해요.

<표 16>을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Tip이 제시된 경우가 있다. Tip은 학습 목표로 제시된 어미의 형태 예시 아래에 제시되었다. Tip에서는 어미가 ‘명사+이다’와 결합할 때의 모습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방법은 명사 뒤에 ‘이다’와 결합한 어미가 쓰이는 것을 예와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명사+이다’의 경우 명사 뒤에 ‘이다’와 결합한 어미가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보면 의미가 같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 ‘명’으로(수

단), ‘**명**으로(방향)’을 보면 부사격조사 ‘으로’는 학습 목표로 제시될 때 의미가 같이 명시되었다. 학습자들은 학습 목표를 보고 ‘으로’가 ‘수단’, ‘방향’의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아래에는 조사의 용법 설명이 있다.

<표 17>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된 조사의 용법 설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목표 문법	의미·용법
<b>명</b> 이에요/예요	사람, 사물 이름을 말할 때 사용해요.
<b>명</b> 은/는	이름이나 직업 등을 소개할 때 사용해요.
<b>명</b> 이/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b>명</b> 에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때 사용해요.
<b>명</b> 을/를	명사에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임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b>명</b> 에 가다	어떤 장소로 이동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b>명</b> 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b>명</b> 에	날짜와 요일, 시간 뒤에 사용해요.
<b>명</b> 이/가 아니에요	주어의 내용이나 어떤 사실을 부정할 때 사용해요.
<b>명</b> 부터 ~ <b>명</b> 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사용해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말할 때 사용해요.
<b>명</b> 하고 <b>명</b>	사람이나 물건을 나열할 때 사용해요.
<b>명</b> 도	어떤 것에 더 추가하여 말할 때 사용해요.
<b>명</b> 에게/한테/께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b>명</b> 으로(수단)	이동의 교통수단을 말할 때 사용해요.
<b>명</b> 보다	앞의 것이 비교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b>명</b> 으로(방향)	이동의 목적지나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	
학습 목표	의미·용법
<b>명</b> 이라고 하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해요.
<b>명</b> 이나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을 말할 때 사용해요.
<b>명</b> 에	어디에 좋은지 나쁜지를 말할 때 사용해요.

<표 17>을 보면 조사의 용법은 ‘...할 때 사용해요.’라는 형식으로 설명되었다. 학습자들은 설명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조사를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용법 설명 전에 추가로 설명이 있는 조사가 있다. ‘명을/를’은 ‘명사에 붙어’로 설명을 시작한다. 용법 설명 전에 조사의 결합 환경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다. ‘명부터~명까지’에서는 용법 설명 전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사용해요.’라는 설명이 있다. 이는 ‘부터’, ‘까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해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다른 조사와 달리 ‘시간’을 의미하는 ‘명에’의 경우 용법 설명에서 ‘날짜, 요일, 시간 뒤에 사용해요.’라고 제시되었다. ‘시간’ 관련 명사 뒤에 사용한다는 설명으로 ‘에’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 2.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 초급 교재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 한국어』의 주교재인 『서울대 한국어 Student's Book』(이하 『서울대 한국어』)의 초급 교재 4권을 분석할 것이다. 『서울대 한국어』의 초급 교재에는 『서울대 한국어 1A』, 『서울대 한국어 1B』, 『서울대 한국어 2A』, 『서울대 한국어 2B』가 있다.

### 2.1. 교재 구성

『서울대 한국어』 초급 교재의 단원을 살펴보면 『서울대 한국어 1A』와 『서울대 한국어 1B』, 『서울대 한국어 2A』와 『서울대 한국어 2B』의 단원이 연결되어 있다. 『서울대 한국어 1A』는 가장 먼저 ‘한글 배우기’ 단원이 있다. 그다음에 단원 1과부터 8과까지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1B』는 단원 9과부터 16까지 있다. 『서울대 한국어 2A』는 1과부터 9과까지, 『서울대 한국어 2B』는 10과부터 18과까지의 단원이 있다. 부록에는 ‘활동지’, ‘문법 해설’, ‘듣기 지문’, ‘모범 답안’, ‘어휘 색인’이 있다.

『서울대 한국어』의 한 단원은 ‘단원의 도입’, ‘어휘’, ‘문법과 표현 1, 2’, ‘말하기 1, 2’,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과제’, ‘문화 산책’, ‘발음’, ‘자기 평가’로 구성

되었다. 이 중에서 조사가 제시되는 ‘문법과 표현’ 부분을 중심으로 『서울대 한국어』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겠다. ‘단원의 도입’에는 단원의 제목과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다. 단원에서 배울 문법은 학습 목표의 ‘문법과 표현 1, 2’에 2개씩 제시되었다. ‘문법과 표현’에서는 삽화와 함께 제시된 예시 대화, 예문 등을 통해 목표 문법의 사용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습 1’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목표 문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2. 『서울대 한국어』의 조사 제시 양상

<그림 2> 『서울대 한국어』 ‘문법과 표현’



<그림 2>는 『서울대 한국어』 ‘문법과 표현’의 일부이다. 이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서울대 한국어』 초급 교재의 조사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서울대 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는 각 단원의 ‘문법과 표현 1, 2’에서 삽화와 예시 대화가 나온 상자 위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1A』의 ‘한글 배우기’ 단원을 제외한 1과부터 8과, 『서울대 한국어 1B』의 9과부터 16과, 『서울대 한국어 2A』의 1과부터 9과, 『서울대 한국어 2B』의 10과부터 18과까지의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살펴보겠다.<sup>72)</sup>

<표 18> 『서울대 한국어 1A』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목표 문법
1과 안녕하세요?	N은/는 N이에요/예요
	N입니까?, N입니다
	N이/가 아닙니다
2과 이거는 뭐예요?	N이/가 있어요[없어요]
	이거는[그거는 저거는] N이에요/예요
	N하고 N, N과/와 N
3과 한국어를 공부해요	N을/를
	N에서
4과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N이에요/예요
	N에 있어요[없어요]
	N에 가요[와요]
5과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N에
6과 얼마예요?	N이/가 A-아요/어요
	N도

<표 19> 『서울대 한국어 1B』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목표 문법
9과 이분은 누구세요?	N(의) N
	N을/를 잘하다[잘 못하다, 못하다]
	N(이)세요
10과 지금 몇 시예요?	N부터 N까지
11과 감기에 걸렸어요	N만
12과 여보세요	N(이)지요?
13과 서울역으로 가 주세요	N에서 N까지
	N(으)로
14과 이 옷을 입어 보세요	N한테[께]

<표 20> 『서울대 한국어 2A』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목표 문법
1과 처음 뵈겠습니다	N(이)라고 하다
	N(이)나 1
3과 콘서트에 가 봤어요?	N인데 1
4과 옷이 좀 큰 것 같아요	N인 것 같다 <sup>73)</sup>
	N보다
5과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N(이)니까 <sup>74)</sup>
6과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예요?	N(으)로

72)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단원의 주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제를 제외하고 단원에서 제시된 조사만 살펴보았다.

	N(이)라서
7과 한옥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N인지 알다[모르다]
9과 문의할 게 있는데요	N인 데요 <sup>75)</sup>
	N인가요? <sup>76)</sup>
	N밖에

<표 21> 『서울대 한국어 2B』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목표 문법
10과 뭐 먹을래?	N인데 <sup>277)</sup>
11과 운동을 좀 해 보는 게 어때요?	N마다
12과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N처럼[같이]
13과 주변이 조용해서 살기 좋아요	N(이)기 때문에 <sup>78)</sup>
18과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N(이)나 2
	N(이)다

<표 18>을 보면 『서울대 한국어 1A』의 6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 2과는 목표 문법 중 3개가 조사로 제시되었다. 1과의 ‘문법과 표현 1’에서는 ‘은/는’과 ‘이에요/예요’가 함께 제시되었다. ‘문법과 표현 2’에서는 첫 번째로 ‘입니까?’, ‘입니다’가 제시되고, 두 번째로 조사 ‘이/가’가 ‘아닙니다’와 제시되었다. 2과의 ‘문법과 표현 1’에서는 먼저 조사 ‘이/가’가 ‘있어요[없어요]’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이거는[그거는, 저거는]’이 ‘이에요/예요’와 제시되었다. ‘문법과 표현 2’에서는 ‘하고’, ‘과/와’가 제시되었다.

3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을/를’이 제시되었고, ‘문법과 표현 2’에서 ‘에서’가 제시되었다. 4과에서는 목표 문법 중 3개가 조사로 제시되었다. ‘문법과 표현 1’에서는 첫 번째로 ‘여기가’가 ‘이에요/예요’와 제시되었고, 두 번째로 조사 ‘에’가 ‘있어요[없어요]’와 제시되었다. ‘문법과 표현 2’에서는 조사 ‘에’가 ‘가요[와요]’와 제시되었다. 5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에’가 제시되었다. 6과는 ‘문법과 표현 2’의 ‘1.’과 ‘2.’에서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1.’에서는 조사 ‘이/가’가 ‘A-아요/어요’와 제시되었고, ‘2.’에서는 ‘도’가 제시되었다.

73) ‘N인 것 같다’는 학습 목표로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와 같이 제시되었다.

74) ‘N(이)니까’는 학습 목표로 ‘A/V-(으)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75) ‘N인 데요’는 학습 목표로 ‘A-(으)ㄴ 데요, V-는 데요’와 같이 제시되었다.

76) ‘N인가요?’는 학습 목표로 ‘A-(으)ㄴ가요?, V-나요?’와 같이 제시되었다.

77) ‘N인데 2’는 학습 목표로 ‘A-(으)ㄴ데, V-는데’와 같이 제시되었다.

78) ‘N(이)기 때문에’는 학습 목표로 ‘A/V-기 때문에’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19>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 1B』의 6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9과는 목표 문법 중 3개가 조사로 제시되었다. ‘문법과 표현 1’에서 첫 번째로 ‘의’가 제시되었고, 두 번째로 조사 ‘을/를’이 ‘잘하다[잘 못하다, 못하다]’와 제시되었다. ‘문법과 표현 2’에서는 ‘(이)세요’가 제시되었다. 10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부터’와 ‘까지’가 같이 제시되었다.

11과는 ‘문법과 표현 2’에서 ‘만’이 제시되었다. 12과는 ‘문법과 표현 2’에서 ‘1-2.’로 ‘(이)지요?’가 제시되었다.<sup>79)</sup> 13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에서’와 ‘까지’가 같이 제시되었고, ‘문법과 표현 2’에서는 ‘(으)로’가 제시되었다. 14과는 ‘문법과 표현 2’에서 ‘한테, 께’가 제시되었다.

<표 20>을 보면 『서울대 한국어 2A』의 7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조사 ‘(이)라고’가 ‘하다’와 제시되었고, ‘문법과 표현 2’에서 ‘(이)나’가 제시되었다. 3과는 ‘문법과 표현 2’에서 ‘1-2.’로 ‘인데’가 제시되었다.<sup>80)</sup> 4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인 것 같다’, ‘문법과 표현 2’에서 ‘보다’가 제시되었다. 5과는 ‘문법과 표현 2’에서 ‘(이)니까’가 제시되었다.

6과는 ‘문법과 표현 1’의 ‘1.’과 ‘2.’에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1.’에서는 ‘(으)로’가 제시되었고, ‘2.’에서는 ‘(이)라서’가 제시되었다. 7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2-2.’로 ‘인지’가 ‘알다[모르다]’와 제시되었다.<sup>81)</sup> 9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인데요’가 제시되었고, ‘문법과 표현 2’에서는 ‘1.’과 ‘2.’에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인가요?’가 제시되었고, 두 번째로 ‘밖에’가 제시되었다.

<표 21>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 2B』의 5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0과는 ‘문법과 표현 2’에서 ‘인데’, 11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마다’가 제시되었다. 12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처럼, 같이’가 제시되었다. 13과는 ‘문법과 표현 2’에서 ‘(이)기 때문에’가 제시되었다. 18과는 ‘문법과 표현 1’에서 ‘(이)나’가 제시되었고, ‘문법과 표현 2’에서 ‘1-2.’로 ‘(이)다’가 제시되었다.<sup>82)</sup>

<표 22>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에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이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79) 1-1.은 ‘A/V-지요?’가 제시되었다.

80) 1-1.은 ‘A-(으)는데, V-는데’가 제시되었다.

81) 2-1.은 ‘V-는지 알다[모르다]’가 제시되었다.

82) 1-1.은 ‘A-다, V-는다/는다’가 제시되었다.

<표 22>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서울대 한국어 2A』	
단원	목표 문법
8과 정말 속상하겠어요	N 때문에
9과 문의할 게 있는데요	V-는 중이다, N 중이다
『서울대 한국어 2B』	
단원	목표 문법
10과 뭐 먹을래?	N 중에(서)
11과 운동을 좀 해 보는 게 어때요?	V-기로 하다
12과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A-(으)ㄴ 편이다, V-는 편이다
13과 주변이 조용해서 살기 좋아요	A/V-기는 하지만
	A/V-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V-기(가) A
14과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V-(으)ㄴ 적(이) 있다[없다]
15과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V-기 전에
	V-(으)ㄴ 후에

『서울대 한국어 2A, 2B』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표현을 보면 조사 ‘에’, ‘이’, ‘다’, ‘에서’, ‘로’, ‘는’, ‘가’, ‘이’가 표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교재에서 표현의 구성보다 표현이 쓰이는 상황, 의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은 조사를 분석할 때 제외하였다.

(2) 조사의 종류

『서울대 한국어 1A, 1B』와 『서울대 한국어 2A, 2B』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들을 제시된 형태와 순서 상관없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구분해 표로 정리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대 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표 23> 『서울대 한국어 1A』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1과	2과	3과	4과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가
	목적격조사			을/를	
	서술격조사	이에요/예요	이에요/예요		이에요/예요

		입니까,입니다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서(장소)	에(장소) 에(목적지)
	호격조사				
	보조사	은/는(주제)	는(주제)		
	접속조사		하고, 과/와		
	단원	5과	6과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시간)			
	호격조사				
	보조사		도		
	접속조사				

<표 24> 『서울대 한국어 1B』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9과	10과	11과	12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을/를			
	서술격조사	(이)세요			(이)지요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호격조사				
	보조사		부터, 까지	만	
	접속조사				
	단원	13과	14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서(출발점) (으)로(방향)	한테, 께		
	호격조사				
	보조사	까지			
	접속조사				

<표 25> 『서울대 한국어 2A』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1과	3과	4과	5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인데	인 <sup>83)</sup>	(이)니까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이)라고		보다	
	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나			
단원		6과	7과	9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라서	인지 <sup>84)</sup>	인데요 인가요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으)로(수단)			
	호격조사				
보조사				밖에	
접속조사					

<표 26> 『서울대 한국어 2B』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10과	11과	12과	13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인데			(이)기 <sup>85)</sup>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	
	호격조사				
보조사			마다		
접속조사					
단원		18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다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83) 'N인 것 같다'에서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인'만 표에 제시했다.

84) 'N인지 알다[모르다]'에서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인지'만 표에 제시했다.

	부사격조사				
	호격조사				
	보조사	(이)나			
	접속조사				

<표 23>을 보면 『서울대 한국어 1A』에서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는 1과에 ‘이에요/예요’, ‘입니까, 입니다’, 2과, 4과에 ‘이에요/예요’가 제시되었다. 이외에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1과에서는 보격조사 ‘이/가’,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제시되었다. 2과에는 주격조사 ‘이/가’, ‘주제’를 의미하는 보조사 ‘는’, 접속조사 ‘하고’, ‘과/와’가 제시되었다.

3과는 목적격조사 ‘을/를’과 부사격조사 ‘에서’가 제시되었다. ‘에서’는 ‘장소’를 나타낸다. 4과에는 주격조사 ‘가’, 부사격조사 ‘에’가 두 번 제시되었다. ‘에’는 ‘장소’, ‘목적지’ 두 가지 의미가 제시되었다. 5과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6과는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도’가 제시되었다. ‘도’는 ‘더함’을 의미한다.

<표 24>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 1B』에서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는 9과에 ‘(이)세요’, 12과에 ‘(이)지요’가 제시되었다. 이외에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9과에서는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가 제시되었다. 10과는 보조사 ‘부터’와 ‘까지’가 제시되었다. ‘부터’는 ‘시작점’, ‘까지’는 ‘범위의 끝’을 의미한다. 11과에 제시된 ‘만’은 보조사이며, ‘한정’을 나타낸다. 13과는 부사격조사 ‘에서’, ‘(으)로’, 보조사 ‘까지’가 제시되었다. ‘에서’는 ‘출발점’, ‘(으)로’는 ‘방향’, ‘까지’는 ‘범위의 끝’을 의미한다. 14과에서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한테, 께’가 제시되었다.

<표 25>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 2A』에서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는 3과에 ‘인데’, 4과에 ‘인’, 5과에 ‘(이)니까’, 6과에 ‘(이)라서’, 7과에 ‘인지’, 9과에 ‘인데요’, ‘인가요’가 제시되었다. 이외에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1과에서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이)라고’와 접속조사 ‘(이)나’가 제시되었다. 4과에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보다’가 제시되었다. 6과에 제시된 ‘(으)로’는 부사격조사이며, ‘수단’을 의미한다. 9

85) ‘N(이)기 때문에’에서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이)기’만 표에 제시했다.

과는 보조사 ‘밖에’가 제시되었다. ‘밖에’는 ‘오직 그것만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표 26>을 보면 『서울대 한국어 2B』에서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는 10과에 ‘인데’, 13과에 ‘(이)기’, 18과에 ‘(이)다’가 제시되었다. 이외에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11과에서는 보조사 ‘마다’가 제시되었다. ‘마다’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를 의미한다. 12과에는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가 제시되었다. 18과에 제시된 ‘(이)나’는 보조사이고, ‘수량이 기대보다 크거나 많음’을 나타낸다.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서술격조사 ‘(이)다’를 포함한 ‘(이)다’의 활용 형태가 학습 목표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도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격조사가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와 부사격조사 다음으로는 보조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 (3) 조사의 제시 순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제시 순서를 분석할 때 『서울대 한국어 1A, 1B』를 초급 교재의 초반, 『서울대 한국어 2A, 2B』를 초급 교재의 후반이라고 보았다. 초급 교재 초반에는 ‘은/는, 이에요/예요’부터 ‘한테, 께’까지 제시되었고, 후반에는 ‘(이)라고’부터 ‘(이)다’까지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 제시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제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는(주제), 이에요/예요 ⇨ 입니까, 입니다 ⇨ 이/가(보격조사) ⇨ 이/가(주격조사) ⇨ 는(주제), 이에요/예요 ⇨ 하고, 과/와(접속조사) ⇨ 을/를 ⇨ 에서(장소) ⇨ 가(주격조사), 이에요/예요 ⇨ 에(장소) ⇨ 에(목적지) ⇨ 에(시간) ⇨ 이/가(주격조사) ⇨ 도 ⇨ 의 ⇨ 을/를 ⇨ (이)세요 ⇨ 부터, 까지 ⇨ 만 ⇨ (이)지요 ⇨ 에서(출발점), 까지 ⇨ (으)로(방향) ⇨한테, 께 ⇨ (이)라고 ⇨ (이)나(접속조사) ⇨ 인데 ⇨ 인<sup>86)</sup> ⇨ 보다 ⇨ (이)니까 ⇨ (으)로(수단) ⇨ (이)라서 ⇨ 인지<sup>87)</sup>

86) ‘N인 것 같다’에서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인’만 제시했다.

87) ‘N인지 알다[모르다]’에서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인지’만 제시했다.

☞ 인데요 ☞ 인가요 ☞ 밖에 ☞ 인데 ☞ 마다 ☞ 처럼, 같이 ☞  
(이)기<sup>88)</sup> ☞ (이)나(보조사) ☞ (이)다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 ‘인데’, 보조사 ‘은/는’, ‘까지’는 학습 목표로 두 번 이상 제시되었다. 이렇게 중복으로 제시된 조사들은 조사의 제시 순서를 살펴볼 때 먼저 제시된 조사로 분석하였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가장 먼저 보조사 ‘은/는’과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가 제시되었다. 그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입니까, 입니다’가 제시되었다. 격조사는 학습 목표로 많이 제시된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와 부사격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다. 격조사의 제시 순서를 보면 보격조사 ‘이/가’,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서술격조사 ‘(이)다’는 초급 교재의 후반에서 조사 중 제일 마지막에 제시되었다.<sup>89)</sup>

부사격조사는 초급 교재 초반부터 후반까지 비슷한 비중으로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초반에는 가장 먼저 ‘에서(장소)’가 제시되었고, 그다음으로 ‘에’가 ‘장소’, ‘목적지’, ‘시간’의 의미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에서(출발점)’, ‘(으)로(방향)’, ‘한테, 께’ 순서로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에는 가장 먼저 ‘(이)라고’가 제시되고, 그다음에 ‘보다’, ‘(으)로(수단)’, ‘처럼, 같이’ 순으로 제시되었다.

보조사는 초급 교재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은/는’ 다음으로 ‘도’, ‘부터, 까지’, ‘만’ 순서로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에는 보조사가 ‘밖에’, ‘마다’, ‘(이)나’ 순으로 제시되었다. 접속조사는 초급 교재 초반에 ‘하고, 과/와’가 제시되고, 초급 교재 후반에 ‘(이)나’가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을 보면 접속조사 ‘(이)나’와 보조사 ‘(이)나’가 모두 제시되었다. 이들의 제시 순서를 살펴보면 접속조사 ‘(이)나’가 먼저 제시되고, 보조사 ‘(이)나’가 교재 후반 마지막쯤에 제시되었다.

88) ‘N(이)기 때문에’에서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이)기’만 제시했다.

89) 『서울대 한국어』에서 제시된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는 서술격조사가 중복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시된 ‘이에요/예요’, ‘입니까, 입니다’를 제외한 ‘이다’의 활용 형태는 조사의 제시 순서를 살펴볼 때 분석하지 않았다.

(4)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

『서울대 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조사가 제시된 형태는 다섯 가지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가 단독 형태로 제시된 경우, 둘째,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셋째,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된 경우, 넷째,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섯째, 서술격조사 ‘이다’는 ‘이다’와 결합한 어미나 표현, 문장 형태로 제시되었다.

<표 27> 『서울대 한국어』의 조사 제시 형태

조사 제시 형태	형태
조사 단독 제시	N하고 N, N과/와 N, N을/를, N에서, N에, N도, N(의) N, N만, N(으)로, N한테[께], N(이)나 1, N보다, N(으)로, N밖에, N마다, N처럼[같이], N(이)나 2, N(이)다
서술어와 함께 제시	N이/가 아닙니다, N이/가 있어요[없어요], N에 있어요[없어요], N에 가요[와요], N이/가 A-아요/어요, N을/를 잘하다[잘 못하다, 못하다], N(이)라고 하다
문장 형태 안에 제시	N은/는 N이에요/예요
조사끼리 제시	N부터 N까지, N에서 N까지
‘이다’와 결합한 어미, 표현, 문장 형태로 제시	N은/는 N이에요/예요, N입니까?, N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저거는] N이에요/예요, 여기가 N이에요/예요, N(이)세요, N(이)지요?, N인데 1, N인 것 같다, N(이)니까, N(이)라서, N인지 알다[모르다], N인데요, N인가요?, N인데 2, N(이)기 때문에

<표 27>을 보면 학습 목표인 조사가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된 경우,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는 제시된 형태 구성으로 조사가 자주 쓰인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해 이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될 때 조사의 결합 환경이 나타난다. ‘N조사’ 형태로 제시돼 학습자들이 조사가 명사 뒤에 결합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접속조사 ‘하고’, ‘과/와’, 관형격조사 ‘의’는 ‘N조사 N’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접속조사 ‘하고’, ‘과/와’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여서 이를 학습 목표 형태로 제시해 보여준 것이다. 이와 달리 접속조사 ‘(이)나’는 ‘N(이)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관형격조사 ‘의’는 명사와 결합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를 학습 목표로 제시할 때 ‘N(의) N’ 형태로 제시해 보여준 것이다. 또 ‘의’를 괄호 안에 제시해 관형격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 목표 형태로 보여주었다.

‘N한테[께]’, ‘N처럼[같이]’를 보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다른 조사가 있을 때 대괄호([ ]) 안에 제시해 함께 학습 목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형태가 두 번 제시된 조사는 학습 목표로 제시된 형태 옆에 번호 ‘1’, ‘2’가 표시되었다. 번호를 보고 학습자들이 같은 형태의 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조사에는 ‘(이)나’와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인데’가 있다. ‘(이)나’는 같은 형태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조사가 두 번 제시된 것이고, ‘인데’는 같은 형태가 다른 의미로 두 번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부사격조사 ‘(으)로’는 ‘수단’과 ‘방향’의 다른 의미로 두 번 제시되었지만,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형태가 있는 조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형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는 ‘은/는’, ‘이/가’처럼 조사의 이형태가 빗금으로 구분돼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는 ‘(으)로’, ‘(이)나’처럼 생략되는 부분이 괄호 안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를 보면 ‘문법과 표현’에서 형태 설명과 용법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습자들은 ‘예’에 제시된 예문을 통해 조사의 쓰임과 형태 정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문에 나온 조사는 진하게 표시돼 있어 조사의 결합 환경에 대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이형태 관련 정보가 ‘예’ 옆에 메모로 정리되어 있다.

<표 28>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1

『서울대 한국어 1A』		
단원	목표 문법	메모
1과	N은/는 N이에요/예요	받침 × + 는

		받침 ○ + 은
		받침 × + 예요
		받침 ○ + 이에요
	N이/가 아닙니다	받침 × + 가
		받침 ○ + 이
2과	N이/가 있어요[없어요]	받침 × + 가
		받침 ○ + 이
2과	N하고 N, N과/와 N	받침 × + 와
		받침 ○ + 과
3과	N을/를	받침 × + 를
		받침 ○ + 을
『서울대 한국어 1B』		
단원	목표 문법	메모
13과	N(으)로	받침× + 로
		받침○ + 으로
		받침ㄹ + 로

<표 28>을 보면 메모는 『서울대 한국어 1A』의 1, 2, 3과, 『서울대 한국어 1B』의 13과에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1A』 1과에서는 보조사 ‘은/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 보격조사 ‘이/가’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2과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접속조사 ‘과/와’, 3과에서는 목적격조사 ‘을/를’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1B』 13과에서는 부사격조사 ‘(으)로’에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형태가 있는 조사 중 ‘(이)나’, ‘(이)다’는 메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메모에는 이형태가 있는 조사의 결합 환경이 ‘받침 × + 형태’, ‘받침 ○ + 형태’로 도식화돼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은 메모를 보고 이형태가 있는 조사가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 올 때,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 올 때 각각 어떤 형태가 결합하는지 알 수 있다. 부사격조사 ‘(으)로’에서는 이형태를 쓸 때 주의할 부분도 제시되었다. ‘(으)로’는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서 ‘으로’로 쓰이지만 받침이 ‘ㄹ’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로’로 쓰인다. 그래서 받침‘ㄹ’은 ‘로’와 결합한다는 것이 따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이형태의 결합 환경이 정리된 메모는 이형태가 있는 조사가 처음 제시됐을 때만 제시되고 있다. 초반에 제시된 이형태가 있는 조사에 메모가 제시되었으면 나중에 같은 형태, 다른 의미의 조사가 제시될 때는 메모가 제시되지 않았

다. 다만, 보격조사 ‘이/가’와 주격조사 ‘이/가’는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조사라는 점에서 메모가 각각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9>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2

『서울대 한국어 1B』		
단원	목표 문법	메모
9과	N(의) N	나 + 의 = 나의 → 내 저 + 의 = 저의 → 제

<표 29>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 1B』의 9과에서 관형격조사 ‘의’가 제시될 때도 ‘예’ 옆에 메모가 제시되었다. 관형격조사 ‘의’에 제시된 메모는 ‘의’가 대명사 ‘나’, ‘저’와 결합하면 ‘내’, ‘제’가 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 조사의 형태, 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된 ‘문법 해설’에서 볼 수 있다. ‘문법 해설’에는 ‘문법과 표현’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용법, 조사의 결합 환경 및 이형태와 관련된 정보, 예문, 조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이 영어 번역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문법 해설’에서 조사의 용법은 ‘...할 때 사용한다.’, ‘...임을 나타낸다.’, ‘...함을 나타낸다.’의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설명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영어 번역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조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사의 결합 환경은 주로 ‘명사와 결합한다.’라고 설명되었다. 그런데 다음의 3가지의 경우는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 가. 장소 명사와 결합한다. (여기가 N이에요/예요)
- 나. 시간 명사와 결합한다. (N에)
- 다. 명사와 함께 쓴다. (N만)

‘가’와 ‘나’는 조사가 어떤 명사와 구체적으로 결합하는지 설명되어 있다. ‘가’를 보면 ‘여기가 N이에요/예요’에서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 앞에 장소 명사가 온다고 설명되었다. 이는 ‘여기가 N이에요/예요’가 현재 있는 장소를

묻고 답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소 명사가 쓰인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에’는 시간 명사와 결합한다고 설명되었다. 조사의 의미로 인해 앞에 오는 명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다’를 보면 ‘N만’은 조사의 결합 환경이 ‘명사와 함께 쓴다.’라고 설명되었다. ‘명사와 결합한다.’를 쉽게 풀어쓴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의 결합 환경을 설명한 그 아래에는 <표 30>과 같이 명사가 받침이 없을 때, 명사가 받침이 있을 때를 나눈 표가 제시되었다. 표에서는 조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모습을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예시는 [‘명사’ + ‘조사’ → ‘명사+조사’]나 [‘명사’ → ‘명사+조사’]로 도식화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1A, 1B』에서는 보조사 ‘은/는’에서처럼 [‘명사’ + ‘조사’ → ‘명사+조사’]로 제시되고, 『서울대 한국어 2A, 2B』에서는 보조사 ‘보다’에 제시된 것처럼 [‘명사’ → ‘명사+조사’]로 제시되었다.

<표 30> 『서울대 한국어』 ‘문법 해설’에 나온 형태 정리표

N은/는 N이에요/예요	
N은/는	
받침 ×	받침 ○
저 + 는 → 저는	스티븐 + 은 → 스티븐은
N이에요/예요	
받침 ×	받침 ○
나나 + 예요 → 나나 <b>예요</b>	학생 + 이에요 → 학생 <b>이에요</b>
N보다	
받침 ×	받침 ○
어제 → 어제 <b>보다</b>	월요일 → 월요일 <b>보다</b>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모습에서 조사는 진하게 표시되었다. ‘N은/는 N이에요/예요’처럼 학습 목표에 제시된 조사가 2개 이상이면 조사마다 결합 환경이 표로 제시되었다. 다만, ‘N처럼[같이]’에서는 ‘처럼’만 조사의 결합 환경이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은 표를 통해 이형태와 관련된 정보도 볼 수 있다. 표를 보고 이형태가 있는 조사들은 받침이 없는 명사, 받침이 있는 명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형태가 없는 조사는 명사의 환경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태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세종한국어(증보판)』 초급 교재

『세종한국어』는 세종학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표준 교재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9년에 나온 증보판 『세종한국어』 초급 교재를 분석할 것이다. 『세종한국어』의 초급 교재에는 『세종한국어 1』, 『세종한국어 2』, 『세종한국어 3』, 『세종한국어 4』 총 4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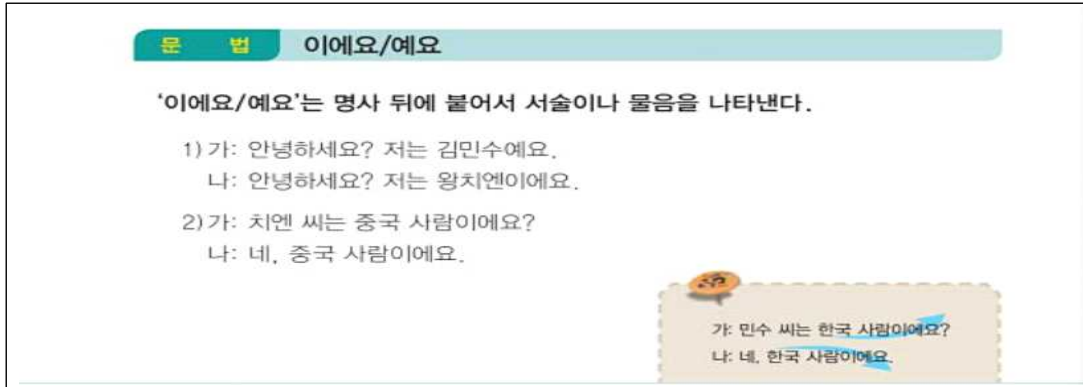
#### 3.1. 교재 구성

『세종한국어』 초급 교재의 단원을 살펴보면 『세종한국어 1』은 가장 먼저 ‘한국어와 한글, 한글 자모, 유용한 표현’으로 구성된 ‘예비편’이 있다. 그다음으로 제1과부터 제12과까지의 12개 단원과 4개의 문화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12개의 단원 중 10개는 학습 단원이고 2개는 복습 단원이다. 『세종한국어 2』, 『세종한국어 3』, 『세종한국어 4』는 제1과부터 제14과까지의 14개 단원과 4개의 문화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교재의 부록에는 ‘듣기 대본’, ‘정답’, ‘문법 설명’, ‘어휘 및 표현 색인’이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의 학습 단원은 ‘도입’, ‘대화 1, 2’,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조사가 제시되는 ‘대화’ 부분을 중심으로 『세종한국어』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겠다. ‘도입’에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사진과 질문,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다. 학습 목표에는 해당 단원에서 배워야 할 기능, 문법,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단원에서 배울 문법은 ‘문법’ 부분에 단원당 2개씩 제시되었다. ‘대화 1, 2’에는 대화문, ‘어휘와 표현’, ‘문법’, ‘연습’이 있다. ‘문법’에서는 설명과 함께 예문을 제시해 맥락 속에서 문법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연습’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2. 『세종한국어』의 조사 제시 양상

<그림 3> 『세종한국어』 ‘대화’의 ‘문법’



<그림 3>은 『세종한국어』 ‘대화’의 ‘문법’ 부분이다. 이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세종한국어』 초급 교재의 조사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세종한국어』 초급 교재에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들은 각 단원의 ‘대화 1, 2’에서 ‘문법’ 부분에 제목으로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 1』의 ‘예비편’ 단원을 제외한 제1과부터 제12과, 『세종한국어 2, 3, 4』의 제1과부터 제14과까지의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살펴보겠다.

<표 31> 『세종한국어 1』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제1과 자기소개	자기소개	이에요/예요
		은/는
제2과 일상생활	일상생활	에 가다
제3과 위치	위치	이/가
		에 있다/없다
제4과 물건 사기 1	물건 사기 1	을/를
제5과 물건 사기 2	물건 사기 2	하고
제6과 어제 일과	어제 일과	에서

제8과 시간	시간	에
--------	----	---

<표 32> 『세종한국어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제4과 교통	교통	이/가 걸리다
		○에서 ○까지
제5과 길 찾기	길 찾기	(으)로
제8과 가족	가족	의
제12과 고향	고향	보다

<표 33> 『세종한국어 3』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제1과 직업	직업	이/가 아니다
제2과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나
제3과 축하	축하	에게
제9과 생활 습관	생활 습관	마다

<표 34> 『세종한국어 4』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제4과 결심	결심	에
제5과 문화 차이	문화 차이	은/는
제6과 감사	감사	밖에
제10과 요리	요리	(으)로
제11과 영화와 드라마	영화와 드라마	같이
제12과 패션	패션	에다가

<표 31>을 보면 『세종한국어 1』의 7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는 ‘자기소개’를 주제로 하며 ‘대화 1, 2’에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대화 1’에서는 ‘이/가’가 제시되었고, ‘대화 2’에서는 ‘은/는’이 제시되었다. 2과는 ‘일상생활’이 주제이며, ‘대화 2’에서 조사 ‘에’가 ‘가다’와 제시되었다. 3과는 ‘위치’가 주제이고, ‘대화 1, 2’에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대화 1’에서는 ‘이/가’가 제시되었고, ‘대화 2’에서는 조사 ‘에’가 ‘있다/없다’와 제시되었다.

4과의 주제는 ‘물건 사기 1’이며, ‘대화 1’에서 ‘을/를’이 제시되었다. 5과는 ‘물건 사기 2’를 주제로 하고, ‘대화 2’에서 ‘하고’가 제시되었다. 6과는 ‘어제 일과’가 주제이고, ‘대화 2’에서 ‘에서’가 제시되었다. 8과는 ‘시간’을 주제로 하며, ‘대화 1’

에서 ‘에’가 제시되었다.

<표 32>를 보면 『세종한국어 2』의 4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4과는 ‘교통’을 주제로 하고, ‘대화 1, 2’에서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대화 1’에서는 조사 ‘이/가’가 ‘걸리다’와 제시되었고, ‘대화 2’에서는 조사 ‘에서’와 ‘까지’가 같이 제시되었다. 5과의 주제는 ‘길 찾기’이며, ‘대화 1’에서 ‘(으)로’가 제시되었다. 8과는 ‘가족’이 주제이고, ‘대화 1’에서 ‘의’가 제시되었다. 12과는 ‘고향’이 주제이며, ‘대화 2’에 ‘보다’가 제시되었다.

<표 33>을 보면 『세종한국어 3』의 4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는 ‘직업’을 주제로 하며, ‘대화 1’에서 조사 ‘이/가’가 ‘아니다’와 제시되었다. 2과는 ‘좋아하는 것’이 주제이고, ‘대화 1’에 ‘(이)나’가 제시되었다. 3과의 주제는 ‘축하’이며, ‘대화 2’에서 ‘에게’가 제시되었다. 9과는 ‘생활 습관’을 주제로 하고, ‘대화1’에서 ‘마다’가 제시되었다.

<표 34>를 보면 『세종한국어 4』의 6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4과는 ‘결심’이 주제이고, ‘대화 2’에서 ‘에’가 제시되었다. 5과는 ‘문화 차이’를 주제로 하며, ‘대화 1’에서 ‘은/는’이 제시되었다. 6과의 주제는 ‘감사’이고, ‘대화 2’에서 ‘밖에’가 제시되었다. 10과는 ‘요리’가 주제이며, ‘대화 1’에서 ‘(으)로’가 제시되었다. 11과는 ‘영화와 드라마’를 주제로 하며, ‘대화 1’에서 ‘같이’가 제시되었다. 12과는 ‘패션’이 주제이고, ‘대화 1’에서 ‘에다가’가 제시되었다.

<표 35>를 보면 『세종한국어』에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이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35>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세종한국어 2』		
단원	주제	목표 문법
제10과 건강	건강	-(으)ㄴ 후에
『세종한국어 3』		
단원	주제	목표 문법
제4과 할 일	할 일	-기(가) 싫다/힘들다/쉽다/어렵다
제5과 휴가 계획	휴가 계획	-기로 하다
제9과 생활 습관	생활 습관	-기 전에
제14과 꿈	꿈	-기 때문에
『세종한국어 4』		



단원	주제	목표 문법
제6과 감사	감사	-(으)ㄴ 덕분에
제9과 경험	경험	-(으)ㄴ 적이 있다/없다
제12과 패션	패션	-는/(으)ㄴ 편이다
제14과 소감	소감	-기네요

『세종한국어 2, 3, 4』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표현을 보면 조사 ‘에’, ‘가’, ‘로’, ‘이’, ‘이다’, ‘는’, ‘요’가 표현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교재에서 표현의 구성보다 표현이 쓰이는 상황, 의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은 조사를 분석할 때 제외하였다.

## (2) 조사의 종류

『세종한국어 1, 2』와 『세종한국어 3, 4』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들을 제시된 형태와 순서 상관없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구분해 표로 정리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표 36> 『세종한국어 1』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서술격조사	이에요/예요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목적지)	에(장소)	
	호격조사				
보조사		은/는(주제)			
접속조사					
단원		제5과	제6과	제8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서(장소)	에(시간)	

	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하고			

<표 37> 『세종한국어 2』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제4과	제5과	제8과	제12과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서(출발점)	(으)로(방향)		보다
	호격조사				
보조사		까지			
접속조사					

<표 38> 『세종한국어 3』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제1과	제2과	제3과	제9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게	
	호격조사				
보조사					마다
접속조사			(이)나		

<표 39> 『세종한국어 4』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제4과	제5과	제6과	제10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단위)			(으)로(재료)
	호격조사				
보조사			은/는(대조)	밖에	
접속조사					
단원		제11과	제12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같이	에다가	
	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표 36>을 보면 『세종한국어 1』의 1과에서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어미와 결합한 ‘이예요/예요’와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제시되었다. 2과에 제시된 ‘에’는 부사격조사이고, ‘목적지’를 의미한다. 3과에는 주격조사 ‘이/가’와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4과는 목적격조사 ‘을/를’이 제시되었고, 5과는 접속조사 ‘하고’가 제시되었다. 6과에 제시된 ‘에서’는 부사격조사로, ‘장소’를 의미한다. 8과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표 37>을 보면 『세종한국어 2』의 4과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와 부사격조사 ‘에서’, 보조사 ‘까지’가 제시되었다. ‘에서’는 ‘출발점’, ‘까지’는 ‘범위의 끝’을 의미한다. 5과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으)로’가 제시되었다. 8과에 제시된 ‘의’는 관형격조사이다. 12과는 부사격조사 ‘보다’가 제시되었다. ‘보다’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표 38>을 보면 『세종한국어 3』의 1과에서는 보격조사 ‘이/가’가 제시되었고, 2과에서는 접속조사 ‘(이)나’가 제시되었다. 3과에는 부사격조사 ‘에게’가 제시되었다. ‘에게’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9과에 제시된 ‘마다’는 보조사이다. ‘마다’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를 의미한다.

<표 39>를 보면 『세종한국어 4』의 4과에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5과에 제시된 ‘은/는’은 보조사이고,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6과는 ‘오직 그것만을 선택함’을 의미하는 보조사 ‘밖에’가 제시되었다. 10과에서는 부사격조사 ‘(으)로’가 제시되었다. ‘(으)로’는 ‘재료’를 의미한다. 11과에는 부사격조사 ‘같이’가 제시되었다. ‘같이’는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낸다. 12과에 제시된 ‘에다가’는 부사격조사이다. ‘에다가’는 ‘앞말에 다른 내용이 더해짐’을 의미한다.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부사격조사가 학습 목표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중 격조사가 교재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사격조사 다음으로는 보조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 (3) 조사의 제시 순서

『세종한국어 1, 2』는 ‘초급 1’, 『세종한국어 3, 4』는 ‘초급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의 제시 순서를 분석할 때 『세종한국어 1, 2』를 초급 교재의 초반, 『세종한국어 3, 4』를 초급 교재의 후반이라고 보았다. 초급 교재 초반에는 ‘이에요/예요’부터 ‘보다’까지 제시되었고, 후반에는 보격조사 ‘이/가’부터 ‘에다가’까지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 제시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제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요/예요 ⇨ 은/는(주제) ⇨ 에(목적지) ⇨ 이/가(주격조사) ⇨ 에(장소) ⇨ 을/를 ⇨ 하고(접속조사) ⇨ 에서(장소) ⇨ 에(시간) ⇨ 이/가(주격조사) ⇨ 에서(출발점), 까지 ⇨ (으)로(방향) ⇨ 의 ⇨ 보다 ⇨ 이/가(보격조사) ⇨ (이)나(접속조사) ⇨ 에게 ⇨ 마다 ⇨ 에(단위) ⇨ 은/는(대조) ⇨ 밖에 ⇨ (으)로(재료) ⇨ 같이 ⇨ 에다가

『세종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부사격조사를 제외한 격조사의 제시 순서를 살펴보면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가 초급 교재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그다음으로 주격조사 ‘이/가’<sup>90)</sup>,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 보격조사 ‘이/가’ 순으로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의 제시 순서를 보면 초급 교재 초반에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 ‘(으)로(방향)’, ‘보다’ 순으로 제시되었다.

더 자세히 보면 ‘에’와 ‘에서’ 두 조사의 여러 의미가 번갈아 제시되고, 그 후에 ‘(으)로(방향)’, ‘보다’가 제시되었다. ‘에’, ‘에서’의 의미 제시 순서를 보면 ‘에’는 ‘목적지’의 의미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그다음에 ‘장소’, ‘시간’ 순으로 의미가

90) 주격조사 ‘이/가’는 두 번 제시되었다. 그래서 조사의 제시 순서를 살펴볼 때는 제시된 주격조사 중 먼저 제시된 조사로 분석하였다.

제시되었다. 그리고 ‘에서’는 ‘장소’의 의미가 먼저 제시되고, ‘출발점’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에는 부사격조사 ‘에게’, ‘에(단위)’, ‘(으)로(재료)’, ‘같이’, ‘에다가’ 순서로 제시되었다.

보조사는 초급 교재 초반에 ‘은/는(주제)’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고, 그다음으로 ‘까지’가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에는 ‘마다’, ‘은/는(대조)’, ‘밖에’ 순으로 제시되었다. 접속조사는 초급 교재 초반에 ‘하고’가 제시되고, 후반에 ‘(이)나’가 제시되었다.

#### (4)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

『세종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조사가 제시된 형태는 네 가지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가 단독 형태로 제시된 경우, 둘째,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셋째,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넷째, 서술격조사 ‘이다’는 ‘이다’와 결합한 어미로 제시되었다.

<표 40> 『세종한국어』의 조사 제시 형태

조사 제시 형태	형태
조사 단독 제시	은/는, 이/가, 을/를, 하고, 에서, 에, (으)로, 의, 보다, (이)나, 에게, 마다, 밖에, 같이, 에다가
서술어와 함께 제시	에 가다, 에 있다/없다, 이/가 걸리다, 이/가 아니다
조사끼리 제시	○에서 ○까지
‘이다’와 결합한 어미 제시	이에요/예요

<표 40>을 보면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가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는 제시된 형태 구성으로 조사가 자주 쓰인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해 이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끼리 제시된 ‘○에서 ○까지’는 조사 ‘에서’와 ‘까지’ 앞에 ‘원형(○)’이 있다. 이를 통해 조사가 앞에 오는 말과 결합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은/는’, ‘이/가’처럼 조사의 이형태를 빗금으로 구분해 제시하거나 ‘(으)로’, ‘(이)나’와 같이 생략되는 형태를 괄호 안에 제시해 이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대화 1, 2’의 ‘문법’을 보면 조사에 대한 설명이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41> 『세종한국어 1』에 제시된 조사 설명

목표 문법	설명
이에요/예요	‘이에요/예요’는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은/는	‘은/는’은 주어가 되는 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의 주제를 나타낸다.
에 가다	‘에 가다’는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목적지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가	‘이/가’는 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의 주어를 나타낸다.
에 있다/없다	‘에 있다/없다’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를 나타낸다.
을/를	‘을/를’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문장의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하고	‘하고’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와 다른 명사를 같은 자격으로 나열할 때 쓰인다.
에서	‘에서’는 명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에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때를 나타낸다.

<표 42> 『세종한국어 2』에 제시된 조사 설명

목표 문법	설명
이/가 걸리다	‘이/가 걸리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에서 ○까지	‘에서’와 ‘까지’는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나타낸다.
(으)로	‘(으)로’는 명사에 붙어서 이동 동사와 함께 쓰여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낸다.
의	‘의’는 명사에 붙어서 앞 명사의 소유임을 나타낸다.
보다	‘보다’는 주로 명사 뒤에 붙어 다른 명사와 비교할 때 쓴다.

<표 43> 『세종한국어 3』에 제시된 조사 설명

목표 문법	설명
이/가 아니다	‘이/가 아니다’는 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이)나	‘(이)나’는 명사 뒤에 붙어서 앞 명사와 뒤 명사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에게	‘에게’는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 그 명사임을 나타낸다.
마다	‘마다’는 명사 뒤에 붙어서 빠지는 것 없이 모두 포함함을 나타낸다.

<표 44> 『세종한국어 4』에 제시된 조사 설명

목표 문법	설명
에	‘에’는 시간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단위임을 나타낸다.
은/는	‘은/는’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낸다.
밖에	‘밖에’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유일하게 선택될 수 있는 경우임을 나타낸다. ‘밖에’ 뒤에는 부정의 내용이 온다.
(으)로	‘(으)로’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재료나 원료가 됨을 나타낸다.
같이	‘같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의 동작, 상태가 앞의 명사와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낸다.
에다가	‘에다가’는 명사 뒤에 붙어서 앞의 명사에 뒤의 명사가 더해짐을 나타낸다.

<표 41>~<표 44>를 보면 한 문장으로 제시된 조사의 설명에는 조사의 결합 환경과 조사의 용법 설명이 있다. 설명 앞쪽에는 ‘명사 뒤에 붙어서’라는 말을 통해 조사가 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부사격조사 ‘에(목적지, 장소, 시간, 단위)’, ‘○에서 ○까지’의 설명에는 조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부사격조사 ‘에(목적지, 장소)’와 ‘○에서 ○까지’는 ‘장소 명사(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라고 설명되었으며, ‘에(시간)’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라고 설명되었다.

그리고 ‘에(단위)’는 ‘시간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라고 설명되었다. 또한 ‘이/가 걸리다’의 설명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라고 제시되었다. ‘명사’가 아닌 ‘말’이라고 했지만, 주격조사 ‘이/가’ 앞에 오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가 걸리다’에서 주격조사 ‘이/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사의 의미·기능에 따라 조사에 결합할 수 있는 명사가 한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조사의 용법 설명은 대부분 ‘…을/를 나타낸다.’의 형식으로 조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되었다. 접속조사 ‘하고’, 보조사 ‘보다’는 ‘…할 때 쓰인다/쓴다.’의 형식으로 조사가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지 설명되었다.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된 ‘에 가다’, ‘에 있다/없다’, ‘이/가 걸리다’, ‘이/가 아니다’의 경우에는 조사가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되었다. 보조사 ‘밖에’의 설명에는 ‘밖에’를 사용할 때 뒤에 부정의 내용이 와야 한다는 주의점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조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로 제시되었다. 메모는 ‘문법’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다.

<표 45>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1

목표 문법	메모
이에요/예요	가: 민수 씨는 한국 사람이예요?↗ 나: 네, 한국 사람이예요.↘
의	‘의’의 발음 명사 뒤의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에게	께 ‘께’는 ‘에게’의 높임말이다. 높여야 하는 사람 뒤에 붙는다. 1) 어제는 선생님께 카드하고 꽃을 드렸어요. 2) 유키 씨는 부모님께 자주 편지를 보내요.
같이	처럼 ‘처럼’은 ‘같이’와 바꿔 쓸 수 있다. 1)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슬픈 영화를 좋아해요. 2) 타완 씨는 한국 사람처럼 말해요.

<표 45>를 보면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의 메모에는 ‘이에요/예요’를 사용할 때 억양에서 주의할 점이 설명되었다. ‘이에요/예요’를 사용해 질문할 때와 대답할 때(서술할 때)의 억양이 다르다는 것을 화살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의’의 메모에는 ‘의’의 발음을 설명하고 있다. 부사격조사 ‘에게’와 ‘같이’



의 메모에는 조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다른 조사에 대한 설명과 예문이 함께 제시되었다. ‘에게’에서는 ‘에게’의 높임말인 ‘께’가 제시되었고, ‘같이’에서는 ‘같이’와 바꿔 쓸 수 있는 ‘처럼’이 제시되었다.

<표 46>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메모 2

메모
...부터...까지
‘...부터...까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1) 한 시부터 세 시까지 낮잠을 잤어요.
2)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숙제를 했어요.

<표 46>은 『세종한국어 3』 5과의 목표 문법 ‘동안’에 제시된 메모이다. 메모에는 ‘동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 ‘...부터...까지’가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은 메모를 통해 보조사 ‘부터’와 ‘까지’가 시간 명사와 결합한다는 것과 ‘부터’, ‘까지’ 각각 ‘시작점’과 ‘범위의 끝’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한국어』에서 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있는 ‘문법 설명’에 추가로 제시되었다. ‘문법 설명’에서는 조사의 이형태가 쓰이는 환경을 설명하거나 조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가 쓰인 예문이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세종한국어 3, 4』에서는 한국어로 설명된 ‘문법 설명’이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 4.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교재

이 연구에서는 『즐거운 한국어』의 초급 교재 『즐거운 한국어 초급 1』과 『즐거운 한국어 초급 2』 2권을 분석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즐거운/정확한 한국어』 두 교재 중 『즐거운 한국어』를 중심으로 어휘와 문법, 언어 기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4.1. 교재 구성

『즐거운 한국어』 초급 교재의 단원을 살펴보면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은 가장 먼저 ‘한글’ 단원이 있다. 그다음에 1과부터 16과까지의 단원이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 초급 2』는 단원 1과부터 16과까지 있다. 부록에는 ‘모범 답안’, ‘듣기 지문’, ‘문화 번역’, ‘단어장’이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에서 한 단원은 ‘단원 도입’, ‘준비’, ‘과제’, ‘도전’, ‘문화를 알아봅시다’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조사가 제시되는 ‘준비’ 부분을 중심으로 『즐거운 한국어』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겠다.

‘단원 도입’은 단원의 제목과 단원의 주제를 나타내는 삽화가 있다. ‘준비’는 각 단원의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법을 학습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원에서 배워야 할 목표 문법의 수만큼 구성되었다. 문법은 보통 한 단원에 3개 정도 제시되며, 4개가 제시될 때도 있다. ‘준비’에서는 목표 문법이 쓰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가 삽화와 함께 제시되었다. 그리고 삽화의 옆 부분(왼쪽이나 오른쪽)에는 예문과 ‘형태 표’가 제시되었다. ‘활용’에서는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91)</sup>

#### 4.2. 『즐거운 한국어』의 조사 제시 양상

<그림 4> 『즐거운 한국어』 ‘준비’



91) 이선웅 외(2019),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도서출판 하우, p.4.

<그림 4>는 『즐거운 한국어』 ‘준비’의 일부이다. 이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즐거운 한국어』 초급 교재의 조사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과 『즐거운 한국어 초급 2』 에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들은 각 단원의 ‘준비’에서 제일 위에 제목으로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의 ‘한글’ 단원을 제외하고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2』 의 1과부터 16과 까지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살펴보겠다.

<표 47>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1과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인사	은/는 이에요/예요
		은/는 입니다, 입니까?
		이/가 아니에요
2과 교실에 시계가 있어요?	교실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
		하고
3과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	을/를
		의
4과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쉬어요.	일상생활	에 가다/오다
		에서
5과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 생활	이/가 어때요?
6과 제 생일은 6월 11일이에요.	날짜와 요일	에
7과 불고기 이 이분 주세요.	식당	도
11과 터미널에 어떻게 가요?	교통수단	(으)로 1
		에서 까지
14과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요.	우체국	에게/한테/께

<표 48> 『즐거운 한국어 초급 2』 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단원	주제	목표 문법
1과 저는 나트라고 해요.	소개	(이)라고 하다

3과 여보세요? 나트 써지요?	전화	(이)지요? <sup>92)</sup>
5과 옷 정리 좀 도와주세요.	부탁	(이)나 1
9과 부모님께 한복을 사 드리고 싶어요.	고향 방문	(이)나 2
10과 교환 좀 하려고 왔어요.	교환/환불	보다
12과 단발머리로 자르고 싶어요.	미용실	처럼
15과 똑바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길 찾기	(으)로 2

<표 47>을 보면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의 9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는 ‘인사’를 주제로 하며, ‘준비①, ②, ③’에서 모두 조사가 제시되었다. ‘준비①, ②’를 보면 조사 ‘은/는’이 제시되었다. ‘은/는’은 ‘준비①’에서 ‘이에요/예요’와 제시되었고, ‘준비②’에서는 ‘입니다, 입니까?’와 제시되었다. ‘준비③’에서는 조사 ‘이/가’가 ‘아니예요’와 제시되었다. 2과의 주제는 ‘교실’이고, ‘준비①, ③’에 조사가 제시되었다. ‘준비①’에서는 조사 ‘이/가’와 ‘에’가 ‘있어요/없어요’와 제시되었고, ‘준비③’에서는 ‘하고’가 제시되었다.

3과는 ‘위치’가 주제이며, ‘준비②, ③’에 조사가 제시되었다. ‘준비②’에서는 ‘을/를’, ‘준비③’에서는 ‘의’가 제시되었다. 4과는 ‘일상생활’이 주제이고, ‘준비②, ③’에서 조사가 제시되었다. ‘준비②’에서는 조사 ‘에’가 ‘가다/오다’와 제시되었고, ‘준비③’에서는 ‘에서’가 제시되었다. 5과는 ‘한국 생활’을 주제로 하며, ‘준비③’에서 조사 ‘이/가’가 ‘어때요?’와 제시되었다.

6과의 주제는 ‘날짜와 요일’이고, ‘준비②’에서 ‘에’가 제시되었다. 7과는 ‘식당’이 주제이며, ‘준비③’에서 ‘도’가 제시되었다. 11과는 ‘교통수단’이 주제이고, ‘준비②, ③’에서 조사가 제시되었다. ‘준비②’에서는 ‘(으)로’가 제시되었고, ‘준비③’에서는 조사 ‘에서’와 ‘까지’가 같이 제시되었다. 14과는 ‘우체국’을 주제로 하며, ‘준비①’에서 ‘에게/한테/께’가 제시되었다.

<표 48>을 보면 『즐거운 한국어 초급 2』의 7개 단원에서 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1과는 ‘소개’를 주제로 하고, ‘준비①’에서 조사 ‘(이)라고’가 ‘하다’와 제시되었다. 3과의 주제는 ‘전화’이며, ‘준비②’에서 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지요’가 제시되었다. 5과는 ‘부탁’이 주제이고, ‘준비①’에서 ‘(이)나’가 제시되었다. 9과는 ‘고향 방문’이 주제이며, ‘준비③’에서 ‘(이)나’가 제시되었다. 10과의 주제는 ‘교환/환불’이고, ‘준비①’에서 ‘보다’가 제시되었다. 12과는 ‘미용실’이 주제이며,

92) ‘(이)지요?’는 ‘-지요?’와 같이 제시되었다.

‘준비②’에서 ‘처럼’이 제시되었다. 15과는 ‘길 찾기’를 주제로 하며, ‘준비①’에서 ‘(으)로’가 제시되었다.

<표 49>를 보면 『즐거운 한국어』에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이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49>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가 포함된 표현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단원	주제	목표 문법
15과 머리가 아파요.	병원	-(으)ㄴ 후에/다음에
『즐거운 한국어 초급 2』		
단원	주제	목표 문법
5과 옷 정리 좀 도와주세요.	부탁	-는 동안(에)
6과 약속 때문에 저녁에 늦어요.	통지	때문에
7과 미안해요. 못 갈 것 같아요.	취소/거절	-기 때문에 -기(가) 힘들다/어렵다
10과 교환 좀 하려고 왔어요.	교환/환불	중에서
14과 남이섬에 놀러 갈래?	나들이	-(으)ㄴ 적이 있다/없다
16과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변화	-기 전에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표현을 보면 조사 ‘에’, ‘가’, ‘에서’, ‘이’가 표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교재에서 표현의 구성보다 표현이 쓰이는 상황, 의미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가 포함된 표현은 조사를 분석할 때 제외하였다.

## (2) 조사의 종류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2』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들을 제시된 형태와 순서 상관없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구분해 표로 정리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즐거운 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표 50>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1과	2과	3과	4과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서술격조사	이에요/예요 입니다,입니까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장소)		에(목적지) 에서(장소)
	호격조사				
보조사		은/는(주제)			
접속조사			하고		
단원		5과	6과	7과	11과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시간)		(으)로(수단) 에서(출발점)
	호격조사				
보조사				도	까지
접속조사					
단원		14과			
주제		우체국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			
	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표 51> 『즐거운 한국어 초급 2』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

단원		1과	3과	5과	9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이)지요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이)라고			
	호격조사				
보조사					(이)나

접속조사				(이)나	
단원		10과	12과	15과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보다	처럼	(으)로 (방향)	
	호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표 50>을 보면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의 1과에서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 ‘입니다, 입니까’, 보격조사 ‘이/가’, ‘주제’를 의미하는 보조사 ‘은/는’이 제시되었다. 2과에는 주격조사 ‘이/가’와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에’는 ‘장소’를 의미한다. 3과는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가 제시되었다. 4과에는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가 제시되었다. ‘에’는 ‘목적지’를 의미하고, ‘에서’는 ‘장소’를 의미한다.

5과는 주격조사 ‘이/가’가 제시되었고, 6과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에’가 제시되었다. 7과에 제시된 ‘도’는 보조사이며, ‘더함’을 의미한다. 11과는 부사격조사 ‘(으)로’와 ‘에서’, 보조사 ‘까지’가 제시되었다. ‘(으)로’는 ‘수단’을 의미하고, ‘에서’는 ‘출발점’, ‘까지’는 ‘범위의 끝’을 의미한다. 14과에서는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가 제시되었다. ‘에게/한테/께’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표 51>을 보면 『즐거운 한국어 초급 2』의 1과에서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이)라고’가 제시되었다. 3과에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지요’가 제시되었다. 5과는 접속조사 ‘(이)나’가 제시되었고, 9과는 보조사 ‘(이)나’가 제시되었다. 보조사 ‘(이)나’는 ‘수량이 기대보다 크거나 많음’을 나타낸다. 10과에서는 부사격조사 ‘보다’가 제시되었다. ‘보다’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12과에 제시된 ‘처럼’은 부사격조사이며,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낸다. 15과에서는 ‘방향’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 ‘(으)로’가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교재에서 격조사가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격조사 중 부사격조사가 학습 목표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부사격조사 다음으로는 보조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조사의 제시 순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제시 순서를 분석할 때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을 초급 교재의 초반, 『즐거운 한국어 초급 2』를 초급 교재의 후반이라고 보았다. 초급 교재 초반에는 ‘은/는, 이에요/예요’부터 ‘에게/한테/께’까지 제시되었고, 후반에는 ‘(이)라고’부터 ‘으로(방향)’까지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에서 제시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제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는(주제), 이에요/예요 ⇨ 은/는(주제), 입니다,입니까 ⇨ 이/가(보격조사) ⇨ 이/가(주격조사), 에(장소) ⇨ 하고(접속조사) ⇨ 을/를 ⇨ 의 ⇨ 에(목적지) ⇨ 에서(장소) ⇨ 이/가(주격조사) ⇨ 에(시간) ⇨ 도 ⇨ (으)로(수단) ⇨ 에서(출발점), 까지 ⇨ 에게/한테/께 ⇨ (이)라고 ⇨ (이)지요 ⇨ (이)나(접속조사) ⇨ (이)나(보조사) ⇨ 보다 ⇨ 처럼 ⇨ (으)로(방향)

『즐거운 한국어』를 보면 격조사 중에서 부사격조사가 초급 교재 초반부터 후반까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도 격조사에서 부사격조사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와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를 제외한 격조사의 제시 순서를 살펴보면 보격조사 ‘이/가’, 주격조사 ‘이/가’<sup>93)</sup>, 목적격조사 ‘을/를’, 관형격조사 ‘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는 초급 교재 초반에 ‘이에요/예요’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고, 그다음에 ‘입니다, 입니까’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지요’는 초급 교재 후반에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는 초급 교재 초반에 ‘에’, ‘에서’, ‘(으)로’, ‘에게/한테/께’ 순으로 제시되었다. ‘에’와 ‘에서’는 여러 의미가 제시되었다. 그래서 의미를 포함한 조사의

93) 주격조사 ‘이/가’는 2번 제시되고 있어 먼저 제시된 주격조사 ‘이/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시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소’를 의미하는 ‘에’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그 다음에 ‘에(목적지)’, ‘에서(장소)’, ‘에(시간)’의 순으로 제시되었고, 이어서 ‘(으)로(수단)’, ‘에서(출발점)’, ‘에게/한테/께’ 순서로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에는 부사격조사 ‘(이)라고’, ‘보다’, ‘처럼’, ‘(으)로(방향)’ 순으로 제시되었다.

보조사는 초급 교재 초반에서 ‘은/는<sup>94)</sup>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고, 그다음에 ‘도’, ‘까지’ 순으로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에는 ‘(이)나’가 제시되었다. 접속조사는 초급 교재 초반에 ‘하고’가 제시되었고, 초급 교재 후반에 ‘(이)나’가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을 보면 접속조사 ‘(이)나’와 보조사 ‘(이)나’가 모두 제시되었다. 이들의 제시 순서를 보면 접속조사 ‘(이)나’가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에 보조사 ‘(이)나’가 제시되었다.

#### (4)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

『즐거운 한국어』에서 학습 목표로 조사가 제시된 형태는 다섯 가지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가 단독 형태로 제시된 경우, 둘째,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셋째,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된 경우, 넷째,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섯째, 서술격조사 ‘이다’는 ‘이다’와 결합한 어미나 문장 형태로 제시되었다.

<표 52> 『즐거운 한국어』의 조사 제시 형태

조사 제시 형태	형태
조사 단독 제시	하고, 을/를, 의, 에서, 에, 도, (으)로 1, 에게/한테/께, (이)나 1, (이)나 2, 보다, 처럼, (으)로 2
서술어와 함께 제시	이/가 아니에요, 에 가다/오다, 이/가 어때요?, (이)라고 하다
문장 형태 안에 제시	은/는 이에요/예요, 은/는 입니다, 입니까?,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
조사끼리 제시	에서 까지
‘이다’와 결합한 어미나	은/는 이에요/예요, 은/는 입니다, 입니까?, (이)지

94) 보조사 ‘은/는’은 같이 오는 서술어를 달리해 2번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제시된 보조사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문장 형태로 제시	요?
-----------	----

<표 52>를 보면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가 서술어와 함께 제시된 경우,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된 경우, 조사끼리 제시된 경우는 제시된 형태 구성으로 조사가 자주 쓰인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해 이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이/가’, ‘을/를’처럼 조사의 이형태를 빗금으로 구분해 제시하거나 ‘(으)로’, ‘(이)나’와 같이 생략되는 형태를 괄호 안에 제시해 이형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에게/한테/께’도 빗금으로 구분돼 제시되었다. ‘에게’, ‘한테’, ‘께’는 같은 의미의 조사지만 앞에 오는 명사나 쓰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에 함께 제시해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형태의 조사가 두 번 제시된 경우에는 학습 목표로 제시된 형태 옆에 번호 ‘1’, ‘2’가 표시되었다. 번호를 보고 학습자들이 같은 형태의 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으)로 1’, ‘(으)로 2’는 같은 형태의 조사가 다른 의미로 두 번 제시된 경우이다. 또 ‘(이)나 1’, ‘(이)나 2’는 같은 형태의 다른 기능을 하는 조사가 두 번 제시된 경우이다.

『즐거운 한국어』에서 조사의 형태, 용법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습자들은 예문과 ‘형태 표’를 보고 조사가 명사와 결합한다는 것,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어떤 명사에 각각의 이형태가 결합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예문은 문장이나 대화로 제시되었고, ‘형태 표’는 예를 통해 조사가 명사와 어떤 형태로 결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문과 ‘형태 표’에서 조사가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어 학습자들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표 53>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 형태 표 1

은/는 이에요/예요				은/는 입니다, 입니까?	
예요	이에요	는	은	입니다	입니까?
자가 <b>예요.</b>	엔젤 <b>이에요.</b>	저 <b>는</b>	마이클 <b>은</b>	자가 <b>입니다.</b>	학생 <b>입니까?</b>
하고		이/가 아니예요			
컴퓨터 <b>하고</b> 텔레비전	가 아니예요			이 아니예요	
안경 <b>하고</b> 모자	주부가 아니예요.			회사원이 아니예요.	

<표 54>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조사 형태 표 2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	
이/가 있어요/없어요.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
지우개가 있어요/없어요.	시계가 교실에 있어요/없어요.
볼펜이 있어요/없어요.	책이 교실에 있어요/없어요.

예문과 ‘형태 표’의 예시는 비슷하게 제시돼 있어 ‘형태 표’를 중심으로 조사의 형태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표 53>을 보면 ‘형태 표’에서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칸을 나눠 조사의 이형태를 먼저 제시한 후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형태가 없는 조사는 ‘하고’처럼 칸을 나누지 않고 예를 2개 제시했다. 그리고 학습 목표에서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예문과 형태가 제시되었다.

학습 목표에서 조사가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된 경우에는 문장에 쓰인 조사들을 따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표 53>을 보면 ‘은/는 이에요/예요’, ‘은/는 입니다, 입니까?’는 예문과 ‘형태 표’가 ‘이에요/예요’, ‘은/는’, ‘입니다, 입니까?’로 각각 제시되었다. ‘은/는 입니다, 입니까?’에서는 ‘은/는’의 예문과 ‘형태 표’가 ‘은/는 이에요/예요’에서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입니까?’의 예문과 ‘형태 표’만 제시되었다.

<표 54>를 보면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의 예문과 ‘형태 표’는 다른 조사와 다르게 예시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에서는 문장에 쓰인 조사들이 따로 제시되지 않고, ‘이/가 있어요/없어요’와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 두 구성으로 예문과 ‘형태 표’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형태를 제시할 때 각각의 형태를 먼저 제시한 후 예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예만 이형태별로 1개씩 제시하였다.

『즐거운 한국어 초급 1』의 4과에 제시된 ‘에서(장소)’는 예문만 제시되었고, ‘형태 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14과에 제시된 ‘에게/한테/께’의 ‘형태 표’에서는 ‘에게/한테’와 ‘께’로 나눠서 표를 제시하고 있다. ‘에게/한테’에는 ‘친구에게/친구한테’, ‘께’에는 ‘선생님께’의 예시가 제시돼 ‘에게/한테’가 결합하는 명사와 ‘께’가 결합하는 명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즐거운 한국어 초급 2』의 12과에 제시된 ‘처럼’은 ‘형태 표’에서 다른 조사의 형태 제시와 달리 ‘-처럼’

으로 나와 있다. 이는 ‘준비②’의 학습 목표로 제시된 ‘처럼’과도 제시 형태에 차이가 있어 학습자들이 조사를 이해할 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와 관련해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돋보기’로 제시하고 있다.

<표 55>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된 ‘돋보기’

목표 문법	돋보기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과: 컴퓨터와 텔레비전, 안경과 모자</li> <li>■ (이)랑: 컴퓨터랑 텔레비전, 안경이랑 모자</li> </ul>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 + 의 → 저의 → 제</li> <li>■ 나 + 의 → 나의 → 내</li> <li>■ 너 + 의 → 너의 → 네</li> </ul>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제에(×) → 어제</li> <li>■ 오늘에(×) → 오늘</li> <li>■ 내일에(×) → 내일</li> </ul>
(으)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필으로(×) → 연필로(○) 지하철으로(×) → 지하철로(○)</li> </ul>

<표 55>를 보면 ‘하고’, ‘의’, ‘에(시간)’, ‘(으)로(수단)’에 ‘돋보기’가 제시되었다. ‘하고’의 ‘돋보기’에는 ‘하고’와 같은 의미인 접속조사 ‘와/과’, ‘(이)랑’이 예와 함께 제시되었다. ‘의’의 ‘돋보기’에는 대명사 ‘저, 나, 너’와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하면 ‘제, 내, 네’로 축약된다는 것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에(시간)’와 ‘(으)로(수단)’의 ‘돋보기’에는 조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제시되었다. ‘에(시간)’의 ‘돋보기’를 보면 예를 통해 부사격조사 ‘에(시간)’가 명사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으)로 1’의 ‘돋보기’를 보면 예를 통해 부사격조사 ‘(으)로(수단)’가 ‘ㄹ’받침으로 끝난 명사와 결합할 때 ‘으로’가 아닌 ‘로’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IV.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 비교 및 제언

이번 장에서는 III장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한 조사 제시 양상을 토대로 초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초급 교재를 활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방향성과 추후 초급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때는 3가지 부분으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살펴본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와 ‘조사의 종류’,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에서 조사가 어떤 형태로 제시되었는지 분석한 것을 하나로 정리해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로 비교할 것이다. 이어서 ‘조사의 제시 순서’,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1.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4종의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에 대해 조사의 종류별로 즉,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순으로 살펴보겠다.

#### 1.1. 격조사

먼저, 초급 한국어 교재 4종에서 학습 목표로 어떤 격조사가 제시되었는지 표로 정리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격조사에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가 있다.

<표 56> 초급 교재에 제시된 격조사

격조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한국어 교재					
주격조사	이/가	○	○	○	○
목적격조사	을/를	○	○	○	○
서술격조사	이다	×	○	×	×
보격조사	이/가	○	○	○	○
관형격조사	의	×	○	○	○
부사격조사	에(장소)	○	○	○	○
	에(목적지)	○	○	○	○
	에(시간)	○	○	○	○
	에(단위)	×	×	○	×
	에(목적)	○	×	×	×
	에서(장소)	○	○	○	○
	에서(출발점)	×	○	○	○
	에게	○	×	○	○
	한테		○	×	
	께				
	(으)로(수단)	○	○	×	○
	(으)로(방향)	○	○	○	○
	(으)로(재료)	×	×	○	×
	보다	○	○	○	○
	처럼	×	○	×	○
	같이			○	×
에다가	×	×	○	×	
(이)라고	○	○	×	○	
호격조사	-	-	-	-	-

<표 56>을 보면 격조사 중 호격조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호격조사를 제외한 다른 격조사들은 초급 교재에서 한 번씩은 다 제시되고 있다.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는 초급 교재 4종에 모두 제시되었다. 관형격조사 ‘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부사격조사는 초급 교재에서 ‘에’, ‘에서’, ‘에게’, ‘한테’, ‘께’, ‘(으)로’, ‘보다’, ‘처럼’, ‘같이’, ‘에다가’, ‘(이)라고’가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의 경우 초급 교재에 제시됐는지 형태, 의미별로 나뉘서 파악했다. 부사격조사는 하나의 조사가 갖는 의미가 다양해 같은 형태의 조사가 다른 의미로 여러 번 제시됐기 때문이다. ‘에’는

의미별로 보면 ‘에(장소, 목적지, 시간)’는 초급 교재 4종에서 모두 제시되었다. ‘에(단위)’는 『세종한국어』에만 제시되었고, ‘에(목적)’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만 제시되었다. ‘에서’는 의미별로 보면 ‘에서(장소)’는 초급 교재 4종에 모두 제시되었지만 ‘에서(출발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시되지 않았다.

‘에게’, ‘한테’, ‘께’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들이다. 이들은 쓰이는 상황이나 앞에 오는 명사가 어떤 대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에게/한테/께’가 같이 학습 목표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한테’와 높임의 대상에 쓰는 ‘께’가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는 ‘에게’만 제시되었고, 메모에 ‘께’가 추가로 제시되었다.

‘(으)로’는 ‘수단’, ‘방향’, ‘재료’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으)로(방향)’는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를 보면 ‘(으)로(수단)’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으)로(재료)’는 제시되었다. ‘보다’는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되었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처럼’과 ‘같이’는 교재마다 다르게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처럼, 같이’가 함께 제시되었고, 『세종한국어』에서는 ‘같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처럼’만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처럼’, ‘같이’가 제시되지 않았다.

‘에다가’는 『세종한국어』에만 제시되었고, ‘(이)라고’는 『세종한국어』를 제외한 3종의 초급 교재에 제시되었다. 4종의 초급 교재를 보면 서술격조사 ‘이다’는 주로 어미와 결합한 형태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서술격조사 ‘이다’를 학습 목표로도 따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된 격조사에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장소, 목적지, 시간)’, ‘에서(장소)’, ‘(으)로(방향)’, ‘보다’가 있다.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서(출발점)’ ‘에게’, ‘한테’, ‘께’, ‘으로(수단)’, ‘(이)라고’는 초급 교재 3종에서 제시되었다. ‘처럼’, ‘같이’는 2종의 초급 교재에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 ‘처럼, 같이’는 같은 의미를 가진 조사로 교재에서 함께 제시된 경우가 있다.

하나의 초급 교재에서만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격조사에는 부사격조사 ‘에(단위, 목적)’, ‘(으)로(재료)’, ‘에다가’,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다. 그리고 호격조사는 초

급 교재 4종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되지 않았다. 호격조사에는 대표적으로 ‘아/야’가 있다. ‘아/야’는 김중섭 외(2017)<sup>95</sup>의 <부록 2>에 제시된 ‘문법 평정 목록’과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 제시된 ‘비교항목표 중급’<sup>96</sup>을 보면 3급,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그래서 초급 교재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급 교재에서 격조사가 어떤 주제에 제시되었고, 형태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교재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한 교재에만 제시된 조사는 제외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한국어』에는 주제가 명시되지 않아 격조사가 제시된 ‘문법과 표현’ 뒤에 나오는 ‘말하기’ 기능으로 다른 교재의 주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표 57> 주격조사 ‘이/가’<sup>97</sup>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사물	사물 이름 묻고 답하기	위치	교실
제시 형태	명 <sup>□</sup> 이/가	N이/가 있어요[없어요]	이/가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

<표 57>을 보면 주격조사 ‘이/가’는 초급 교재에서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고 있다.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교실에서의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형태인 ‘이’와 ‘가’가 빗금으로 구분돼 제시되었고, 학습 목표로 제시된 형태는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 한국어』에서는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되었고,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문장 형태 안에 주격조사 ‘이/가’가 제시되었다.

95)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96)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비교항목표 중급(11-14)”,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do?curPage=11&searchGrade=02&srchKeyword=&srchChosung=&searchCategory=&mode=&searchTabMenu=tab2&id=&srchKey=headword&searchChineseYn=>, 2022.9.26.

97) 주격조사 ‘이/가’가 교재에서 두 번 이상 제시된 경우에는 먼저 제시된 주격조사 ‘이/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58> 목적격조사 ‘을/를’<sup>98)</sup>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일상생활	현재 하는 일 묻고 답하기	물건 사기 1	위치
제시 형태	명 <sup>□</sup> 을/를	N을/를	을/를	을/를

<표 58>을 보면 목적격조사 ‘을/를’은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형태인 ‘을’, ‘를’이 빗금으로 구분돼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에서 ‘을/를’은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일상생활’, 『세종한국어』에서는 ‘물건 사기’,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위치’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표 59> 보격조사 ‘이/가’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날짜와 요일	격식적인 상황에서 자기소개하기	직업	인사
제시 형태	명 <sup>□</sup> 이/가 아니에요	N이/가 아닙니다	이/가 아니다	이/가 아니에요

<표 59>를 보면 보격조사 ‘이/가’는 4종의 초급 교재에서 모두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형태인 ‘이’와 ‘가’가 빗금으로 구분돼 제시되었다. 보격조사 ‘이/가’는 교재마다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자기소개·인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날짜와 요일’, 『세종한국어』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표 60> 관형격조사 ‘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	--------------	---------	-------	---------

98) 목적격조사 ‘을/를’이 교재에서 두 번 이상 제시된 경우에는 먼저 제시된 목적격조사 ‘을/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주제	-	친구 소개하기	가족	위치
제시 형태	-	N(의) N	의	의

<표 60>을 보면 관형격조사 ‘의’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학습 목표 형태를 통해 조사가 쓰이는 환경과 조사의 생략을 보여주고 있다. 초급 교재에서 ‘의’는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친구 소개하기’, 『세종한국어』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그런데 두 교재는 소개하는 상황에서 ‘의’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위치’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표 61> 부사격조사 ‘에’

에(장소)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사물	장소 소개하기	위치	교실
제시 형태	☐에 있어요	N에 있어요[없어요]	에 있다/없다	이/가 에 있어요/없어요
에(목적지)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장소	목적지와 위치 묻고 답하기	일상생활	일상생활
제시 형태	☐에 가다	N에 가요[와요]	에 가다	에 가다/오다
에(시간)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날짜와 요일	날짜와 요일 묻고 답하기	시간	날짜와 요일
제시 형태	☐에	N에	에	에

부사격조사 ‘에’는 학습 목표로 제시된 의미 ‘장소’, ‘목적지’, ‘시간’ 순으로 비교하겠다. <표 61>을 보면 ‘에(장소)’는 초급 교재에서 ‘사물, 장소의 위치’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즐거운 한국어』를 제외한 3종의 초급 교재에서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서술어 ‘있어요’만 제시돼 차이를 보인다.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문장 형태 안에 ‘에(장소)’가 제시되었다.

‘에(목적지)’는 초급 교재 4종에서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다른 두 교재와 달리 서술어 ‘가다’만 제시되었다. ‘에(목적지)’는 초급 교재에서 두 가지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는 ‘장소’,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에(시간)’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날짜와 요일, 시간’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고 있다.

<표 62> 부사격조사 ‘에서’

에서(장소)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장소	장소 묻고 답하기	어제 일과	일상생활
제시 형태	명에서	N에서	에서	에서
에서(출발점)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	방학 계획 표현하기	교통	교통수단
제시 형태	-	N에서 N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부사격조사 ‘에서’는 학습 목표로 제시된 의미 ‘장소’, ‘출발점’ 순서로 비교하겠다. <표 62>를 보면 ‘에서(장소)’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교재마다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장소’, 『세종한국어』에서는 ‘어제 일과’,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에서(출발점)’는 초급 교재에서 보조사 ‘까지’와 같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교통, 교통수단’과 관련된 주제, 상황·맥락에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 방학 때 여행 계획을 얘기하면서 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 ‘에서(출발점)’를 쓰고 있다.

<표 63> 부사격조사 ‘에게’, ‘한테’, ‘께’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특별한 날	권유하기	축하	우체국
제시 형태	명에게/한테/께	N한테[께]	에게	에게/한테/께

<표 63>을 보면 부사격조사 ‘에게’, ‘한테’, ‘께’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고, 제시된 조사는 교재에 따라 다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에게/한테/께’가 같이 제시되었고,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한테, 께’가 같이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에게’만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를 보면 ‘에게’, ‘한테’, ‘께’가 다른 주제에 제시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특별한 날, 축하’와 관련된 주제,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우체국’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권유하는 상황’에서 ‘한테, 께’가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4> 부사격조사 ‘(으)로’

(으)로(수단)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교통	소포 보내기	-	교통수단
제시 형태	명(으)로(수단)	N(으)로	-	(으)로 1
(으)로(방향)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공공장소	요청하기	길 찾기	길 찾기
제시 형태	명(으)로(방향)	N(으)로	(으)로	(으)로 2

<표 64>를 보면 부사격조사 ‘(으)로’는 의미와 상관없이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외한 3종의 초급 교재에서는 생략되는 형태를 괄호 안에 제시해 이형태인 ‘으로’와 ‘로’를 나타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으로’만 제시되었고, ‘으로’ 옆에 의미가 같이 제시되었

다.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으)로’가 다른 의미로 두 번 제시되었다는 것을 조사 옆에 번호 ‘1’, ‘2’를 붙여 나타냈다.

부사격조사 ‘(으)로’가 제시된 단원의 주제를 살펴볼 때는 초급 교재에서 제시된 의미 ‘수단’, ‘방향’ 순서로 비교하겠다. ‘(으)로(수단)’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교통, 교통수단’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소포를 보내는 상황’에서 수단을 얘기할 때 ‘(으)로(수단)’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으)로(방향)’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공공장소’와 관련된 주제,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길 찾기’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길을 묻고 답하는 상황에 ‘(으)로(방향)’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의 두 교재와 비슷한 맥락이 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택시에서 원하는 장소로 가달라는 요청을 할 때 ‘(으)로(방향)’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5> 부사격조사 ‘보다’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날씨	물건 교환하기	고향	교환/환불
제시 형태	명보다	N보다	보다	보다

<표 65>를 보면 부사격조사 ‘보다’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보다’는 교재마다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날씨’, 『세종한국어』에서는 ‘고향’, 『서울대 한국어』와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물건 교환, 환불’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표 66>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	외모 묘사하기	영화와 드라마	미용실
제시 형태	-	N처럼[같이]	같이	처럼

<표 66>을 보면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고, 제시된 조사는 교재에 따라 다르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처럼’, ‘같이’가 함께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같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처럼’만 제시되었다. 그리고 ‘처럼, 같이’는 교재에 따라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외모 묘사하기’, 『세종한국어』에서는 ‘영화와 드라마’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미용실’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표 67> 부사격조사 ‘(이)라고’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고향	자기소개하기	-	소개
제시 형태	명이라고 하다	N(이)라고 하다	-	(이)라고 하다

<표 67>을 보면 부사격조사 ‘(이)라고’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생략되는 형태를 괄호 안에 제시해 ‘(이)라고’의 이형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라고’는 교재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고향’,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소개’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주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장소, 시간)’, ‘에서(출발점)’는 초급 교재에서 같은 주제에 제시되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격조사는 초급 교재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그런데 격조사가 제시된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격조사가 2종 이상의 교재에서 같은 주제에 제시되었거나 비슷한 상황·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가 제시된 교재 단원의 주제만 명확히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격조사 대부분이 초급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될 때 공통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다. 목적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에(시간)’, ‘에서(장소)’, ‘에게’, ‘한테’, ‘께’, ‘(으)로(수단, 방향)’, ‘보다’, ‘처럼’, ‘같이’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중 ‘에게’, ‘한테’, ‘께’와 ‘처럼’, ‘같이’는 교재마다 제시된 조사가 다르게

나타났다. 보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목적지)’, ‘(이)라고’는 서술어와 함께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에서(출발점)’는 보조사 ‘까지’와 같이 제시돼 ‘에서~까지’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주격조사 ‘이/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조사 단독 형태로,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조사+서술어’ 구성,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에(장소)’는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되었고, 다른 3종의 초급 교재에서는 ‘조사+서술어’ 구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른 교재와 달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부사격조사 ‘(으)로’와 ‘(이)라고’를 학습 목표로 제시할 때 조사의 이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으로’, ‘이라고’로 제시하였다.

## 1.2. 보조사

먼저, 초급 한국어 교재 4종에서 학습 목표로 어떤 보조사가 제시되었는지 표로 정리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표 68>을 보면 초급 교재에서 보조사는 ‘은/는(주제, 대조)’, ‘부터’, ‘까지’, ‘도’, ‘만’, ‘마다’, ‘밖에’, ‘(이)나’가 제시되었다.

<표 68> 초급 교재에 제시된 보조사

보조사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은/는(주제)	○	○	○	○
은/는(대조)	×	×	○	×
부터	○	○	×	×
까지	○	○	○	○
도	○	○	×	○
만	×	○	×	×
마다	×	○	○	×
밖에	×	○	○	×
(이)나	×	○	×	○

보조사 ‘은/는’은 ‘주제’와 ‘대조’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은/는(주제)’은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되었고, ‘은/는(대조)’은 『세종한국어』에만 제시되었다. 보

조사 ‘부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되었고, 보조사 ‘까지’는 초급 교재 4종에 모두 제시되었다. 보조사 ‘도’는 『세종한국어』를 제외한 3종의 초급 교재에 제시되었다. 보조사 ‘만’은 『서울대 한국어』에만 제시되었다. 보조사 ‘마다’와 ‘밖에’는 『서울대 한국어』와 『세종한국어』에 제시되었고, 보조사 ‘(이)나’는 『서울대 한국어』와 『즐거운 한국어』에 제시되었다.

정리하자면 초급 교재 4종에 모두 제시된 보조사는 ‘은/는(주제)’, ‘까지’이다. 보조사 ‘도’는 3종의 초급 교재에 제시되었으며, 보조사 ‘은/는(대조)’, ‘만’은 한 교재에만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중 두 교재에 제시된 보조사에는 ‘부터’, ‘마다’, ‘밖에’, ‘(이)나’가 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에서 제시된 보조사 중 ‘은/는(대조)’만 제시되지 않았고, 다른 보조사들은 다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초급 교재에서 보조사가 어떤 주제에 제시되었고, 형태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교재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한 교재에만 제시된 조사는 제외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한국어』에는 주제가 명시되지 않아 보조사가 제시된 ‘문법과 표현’ 뒤에 나오는 ‘말하기’ 기능으로 다른 교재의 주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표 69> 보조사 ‘은/는(주제)’<sup>99)</sup>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인사와 소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자기소개하기	자기소개	인사
제시 형태	명은/는	N은/는 N이에요/예요	은/는	은/는 이에요/예요

<표 69>를 보면 보조사 ‘은/는(주제)’은 초급 교재에서 ‘인사, 소개’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형태인 ‘은’, ‘는’이 빗금으로 구분돼 제시되었으며, 교재마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고,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되었다.

99) 보조사 ‘은/는’이 교재에서 두 번 이상 제시된 경우에는 먼저 제시된 보조사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70> 보조사 ‘부터’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하루 일과	약속 시간 정하기	-	-
제시 형태	명부터~명까지	N부터 N까지	-	-

<표 70>을 보면 보조사 ‘부터’는 초급 교재에서 보조사 ‘까지’와 같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교재마다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하루 일과’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고,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약속 시간 정하기’에 제시되었다.

<표 71> 보조사 ‘까지’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하루 일과	약속 시간 정하기 방학 계획 표현하기	교통	교통수단
제시 형태	명부터~명까지	N부터 N까지 N에서 N까지	○에서 ○까지	에서 까지

<표 71>을 보면 보조사 ‘까지’는 초급 교재에서 자주 쓰이는 조사와 같이 제시되었다. 같이 제시된 조사는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에서’와 같이 제시되었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부터’와 같이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부터’, ‘에서’와 같이 쓰인 형태가 모두 제시되었다.

‘까지’는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 ‘교통, 교통수단’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약속 시간 정하기’와 ‘방학 계획 표현하기’에 제시되었다. ‘방학 계획 표현하기’에서는 방학 때 여행 계획을 얘기하면서 교통 관련 내용을 말할 때 ‘까지’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앞에 두 교재와 비슷한 맥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하루 일과’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표 72> 보조사 ‘도’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주말	물건의 가격 묻기	-	식당
제시 형태	명도	N도	-	도

<표 72>를 보면 보조사 ‘도’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3종의 교재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주말’,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식당’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물건의 가격을 묻는 상황에서 ‘도’가 쓰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73> 보조사 ‘마다’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	증상 설명하기	생활 습관	-
제시 형태	-	N마다	마다	-

<표 73>을 보면 보조사 ‘마다’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교재 2종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아픈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을 때 ‘마다’가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74> 보조사 ‘밖에’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	문의하기	감사	-
제시 형태	-	N밖에	밖에	-

<표 74>를 보면 보조사 ‘밖에’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밖에’가 제시된 교재 2종의 주제를 보면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고 있

다. 『세종한국어』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문의하는 상황에서 ‘밖에’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5> 보조사 ‘(이)나’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	한국 생활 감회 표현하기	-	고향 방문
제시 형태	-	N(이)나 2	-	(이)나 2

<표 75>를 보면 보조사 ‘(이)나’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생략되는 형태를 괄호 안에 제시해 이형태인 ‘이나’와 ‘나’를 모두 나타냈다.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 모두 ‘(이)나’ 옆에 번호 ‘2’가 있다. 이는 접속조사 ‘(이)나’와 구분하기 위해 표시된 것이다. ‘(이)나’는 2종의 교재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고향 방문’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한국 생활의 감회를 표현할 때 ‘(이)나’가 쓰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보조사 ‘은/는(주제)’은 4종의 초급 교재에서 같은 주제, ‘인사, 소개’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보조사 ‘까지’는 3종의 초급 교재에서 ‘에서’와 같이 ‘에서~까지’로 제시될 때 ‘교통, 교통수단’과 관련된 주제, 상황·맥락에 제시되었다. 반면, 다른 보조사들은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보조사 대부분이 초급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될 때 공통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다. 보조사 ‘도’, ‘마다’, ‘밖에’, ‘(이)나’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보조사 ‘부터’와 ‘까지’는 서로 같이 쓰이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까지’의 경우 부사격조사 ‘에서(출발점)’와 같이 제시된 교재도 있다. 보조사 ‘은/는(주제)’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조사 단독 형태로,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문장 형태 안에 제시되었다.

### 1.3. 접속조사

먼저, 4종의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어떤 접속조사가 제시되었는지

표로 정리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표 76> 초급 교재에 제시된 접속조사

보조사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와/과	×	○	×	×
하고	○	○	○	○
(이)나	○	○	○	○

<표 76>을 보면 초급 교재에서 접속조사는 ‘와/과’, ‘하고’, ‘(이)나’가 제시되었다. 접속조사 ‘하고’와 ‘(이)나’는 초급 교재 4종에 모두 제시되었다. 접속조사 ‘와/과’는 『서울대 한국어』 한 교재에만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 ‘와/과’는 같은 용법을 가진 접속조사 ‘하고’와 같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초급 교재에서 접속조사가 어떤 주제에 제시되었고, 형태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교재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한 교재에만 제시된 조사는 제외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한국어』에는 주제가 명시되지 않아 접속조사가 제시된 ‘문법과 표현’ 뒤에 나오는 ‘말하기’ 기능으로 다른 교재의 주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표 77> 접속조사 ‘하고’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쇼핑	가게에서 원하는 물건 요구하기	물건 사기 2	교실
제시 형태	명하고 명	N하고 N	하고	하고

<표 77>을 보면 접속조사 ‘하고’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하고’ 앞뒤로 명사가 오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초급 교재에서 ‘하고’가 제시된 주제를 보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교실’과 관련된 주제, 다른 3종의 초급 교재에서는 ‘쇼핑, 물건 사기’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표 78> 접속조사 ‘(이)나’

한국어 교재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주제	물건 사기	주말에 하는 일 설명하기	좋아하는 것	부탁
제시 형태	명이나	N(이)나 1	(이)나	(이)나 1

<표 78>을 보면 접속조사 ‘(이)나’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외한 3종의 교재에서는 생략되는 형태를 괄호 안에 제시해 이형태인 ‘이나’와 ‘나’를 모두 나타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이나’만 제시되었다. 그리고 『서울대 한국어』와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이)나’ 옆에 번호 ‘1’이 있다. 이는 보조사 ‘(이)나’와 구분하기 위해 표시된 것이다.

‘(이)나’는 초급 교재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물건 사기’, 『세종한국어』에서는 ‘좋아하는 것’,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부탁’과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주말에 하는 일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접속조사 ‘하고’와 ‘(이)나’는 초급 교재 4종에 모두 제시되었다. ‘와/과’는 『서울대 한국어』 한 교재에만 제시되었는데, ‘하고’와 같이 제시되었다. ‘하고’와 ‘(이)나’는 4종의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접속조사가 학습 목표로 제시된 형태를 더 자세히 보면 ‘하고’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에서 ‘N하고 N’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접속조사가 사용되는 환경을 학습 목표의 형태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나’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외한 교재에서 생략되는 형태를 괄호 안에 제시해 이형태를 나타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학습 목표로 ‘이나’만 제시했다. 또 보조사 ‘(이)나’도 학습 목표로 제시된 교재에서는 ‘(이)나’ 옆에 번호를 붙여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속조사가 제시된 단원의 주제를 보면 ‘하고’는 『즐거운 한국어』에서만 ‘교실’이라는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이)나’는 초급 교재 4종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 2. 조사의 제시 순서

4종의 초급 교재를 보면 모두 첫 번째 교재<sup>100)</sup>의 1과에서부터 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1과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조사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와 보조사 ‘은/는(주제)’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1과에서 가장 먼저 ‘이에요/예요’가 제시되고, 그다음에 보조사 ‘은/는(주제)’이 제시되었다. 반면,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에서는 1과에서 가장 먼저 보조사 ‘은/는(주제)’과 ‘이에요/예요’가 문장 형태 ‘은/는 이예요/예요’로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4종에서는 1과의 주제 ‘인사, 자기소개’와 연결해서 기본 문장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에요/예요’와 ‘은/는(주제)’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서술어인 ‘이에요/예요’가 ‘은/는(주제)’보다 먼저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급 교재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이에요/예요’와 ‘은/는(주제)’ 다음으로 제시된 조사의 순서를 교재별로 정리해 살펴보겠다.

<표 79> 초급 교재의 조사 제시 순서

한국어 교재	조사 제시 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에요/예요 ⇨ 은/는(주제) ⇨ 이/가(주격조사) ⇨ 예(장소) ⇨ 을/를 ⇨ 예(목적지) ⇨ 에서(장소) ⇨ 예(시간) ⇨ 이/가(보격조사) ⇨ 부터, 까지 ⇨ 하고(접속조사) ⇨ 도 ⇨ 에게/한테/께 ⇨ 으로(수단) ⇨ 보다 ⇨ 으로(방향) ⇨ 이라고 ⇨ 이나(접속조사) ⇨ 예(목적)
서울대 한국어	은/는(주제), 이예요/예요 ⇨ 입니까, 입니다 ⇨ 이/가(보격조사) ⇨ 이/가(주격조사) ⇨ 는(주제), 이예요/예요 ⇨ 하고, 과/와(접

100)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서울대 한국어 1A』, 『세종한국어 1』,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속조사) ㄷ 을/를 ㄷ 에서(장소) ㄷ 가(주격조사), 이에요/예요 ㄷ 에(장소) ㄷ 에(목적지) ㄷ 에(시간) ㄷ 이/가(주격조사) ㄷ 도 ㄷ 의 ㄷ 을/를 ㄷ (이)세요 ㄷ 부터, 까지 ㄷ 만 ㄷ (이)지요 ㄷ 에서(출발점), 까지 ㄷ (으)로(방향) ㄷ 한테, 께 ㄷ (이)라고 ㄷ (이)나(접속조사) ㄷ 인데 ㄷ 인 ㄷ 보다 ㄷ (이)니까 ㄷ (으)로(수단) ㄷ (이)라서 ㄷ 인지 ㄷ 인데요 ㄷ 인가요 ㄷ 밖에 ㄷ 인데 ㄷ 마다 ㄷ 처럼, 같이 ㄷ (이)기 ㄷ (이)나(보조사) ㄷ (이)다
세종한국어	이에요/예요 ㄷ 은/는(주제) ㄷ 에(목적지) ㄷ 이/가(주격조사) ㄷ 에(장소) ㄷ 을/를 ㄷ 하고(접속조사) ㄷ 에서(장소) ㄷ 에(시간) ㄷ 이/가(주격조사) ㄷ 에서(출발점), 까지 ㄷ (으)로(방향) ㄷ 의 ㄷ 보다 ㄷ 이/가(보격조사) ㄷ (이)나(접속조사) ㄷ 에게 ㄷ 마다 ㄷ 에(단위) ㄷ 은/는(대조) ㄷ 밖에 ㄷ (으)로(재료) ㄷ 같이 ㄷ 에다가
즐거워 한국어	은/는(주제), 이에요/예요 ㄷ 은/는(주제), 입니다,입니까 ㄷ 이/가(보격조사) ㄷ 이/가(주격조사), 에(장소) ㄷ 하고(접속조사) ㄷ 을/를 ㄷ 의 ㄷ 에(목적지) ㄷ 에서(장소) ㄷ 이/가(주격조사) ㄷ 에(시간) ㄷ 도 ㄷ (으)로(수단) ㄷ 에서(출발점), 까지 ㄷ 에게/한테/께 ㄷ (이)라고 ㄷ (이)지요 ㄷ (이)나(접속조사) ㄷ (이)나(보조사) ㄷ 보다 ㄷ 처럼 ㄷ (으)로(방향)

<표 79>를 보면 부사격조사는 초급 교재의 초반이나 후반에 상관없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사격조사의 종류가 많이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같은 형태의 부사격조사가 교재에서 여러 의미·기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의미가 제시된 부사격조사 ‘에’, ‘에서’, ‘(으)로’의 의미 제시 순서를 교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0> 부사격조사의 의미 제시 순서

부사격조사	한국어 교재	의미 제시 순서
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장소 → 목적지 → 시간 → 목적
	서울대 한국어	장소 → 목적지 → 시간
	세종한국어	목적지 → 장소 → 시간 → 단위
	즐거워 한국어	장소 → 목적지 → 시간
에서	서울대 한국어	장소 → 출발점
	세종한국어	장소 → 출발점

	즐거운 한국어	장소 → 출발점
(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단 → 방향
	서울대 한국어	방향 → 수단
	세종한국어	방향 → 재료
	즐거운 한국어	수단 → 방향

부사격조사 ‘에’, ‘에서’의 의미는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고 있다. 부사격조사 ‘에’의 의미는 『세종한국어』를 제외한 3종의 초급 교재에서 ‘장소’, ‘목적지’, ‘시간’ 순으로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목적지’, ‘장소’, ‘시간’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 후반에 ‘에’의 의미가 하나 더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목적’의 의미, 『세종한국어』에서는 ‘단위’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에서’는 『서울대 한국어』, 『세종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 ‘장소’와 ‘출발점’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두 가지 의미는 세 교재에서 모두 같은 순서로 제시되었다. ‘에서’가 제시될 때 ‘장소’의 의미가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으로 ‘출발점’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 ‘수단’과 ‘방향’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두 가지 의미의 제시 순서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수단’, ‘방향’ 순으로 의미가 제시되었다. 두 교재와 달리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방향’, ‘수단’ 순으로 의미가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방향’과 ‘재료’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으)로’가 제시될 때 ‘방향’의 의미가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에 ‘재료’의 의미가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초급 교재 초반에 ‘(으)로’의 의미가 모두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다른 초급 교재 3종에서는 ‘(으)로’의 의미가 초급 교재 초반과 후반에 하나씩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에게’, ‘한테’, ‘께’는 『세종한국어』에서 초급 교재 후반에 제시되었고, 다른 3종의 초급 교재에서는 초반에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보다’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고,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 후반에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이)라고’, ‘처럼’, ‘같이’는 제시된 초급 교재에서 모두



후반에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의 초반과 후반에 모두 제시된 부사격조사를 제외하면 격조사는 대부분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초급 교재 초반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순으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 초반에 보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순으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 초급 교재 후반에 서술격조사가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 초반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순으로 제시되었고, 초급 교재 후반에 보격조사가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는 다른 교재와 달리 보격조사가 초급 교재 후반에 제시되었다.

격조사에서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는 ‘이/가’로 같은 형태이다. 같은 형태인 두 조사를 4종의 초급 교재에서 어떤 순서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종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 보격조사 순으로 제시되었고,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보격조사, 주격조사 순으로 제시되었다.

보조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다른 3종의 교재에서는 초급 교재 초반과 후반에 모두 제시되었다. 그런데 교재마다 초반과 후반에 보조사가 제시된 비중은 다르다.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보조사가 초급 교재 초반에 더 많이 제시되었다. 반면, 『세종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 후반에 보조사가 더 많이 제시되었다. 보조사 ‘은/는(주제)’은 4종의 교재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초급 교재 초반에 보조사 ‘부터’, ‘까지’, ‘도’, ‘만’이 제시되었다.

‘은/는(주제)’ 다음으로 제시된 보조사의 순서를 교재별로 살펴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부터, 까지’, ‘도’ 순으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도’, ‘부터, 까지’, ‘만’ 순으로 제시되었고,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도’, ‘까지’ 순으로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은/는(주제)’ 다음으로 ‘까지’가 제시되었다.

초급 교재 후반에는 보조사 ‘마다’, ‘밖에’, ‘(이)나’, ‘은/는(대조)’이 제시되었다. 교재별로 초급 교재 후반에 제시된 보조사의 순서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밖에’, ‘마다’, ‘이나’ 순으로 제시되었다. 『세종한국어』에서는 ‘마다’, ‘은/

는(대조)', '밖에' 순으로 제시되었고,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이)나'만 제시되었다.

4종의 초급 교재에서 접속조사 '하고'와 '(이)나'의 제시 순서는 같았다. '하고'는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고, '(이)나'는 초급 교재 후반에 제시되었다. 접속조사 '와/과'는 『서울대 한국어』에서 '하고'와 함께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초급 교재 후반에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가 모두 제시되었다. 두 조사의 제시 순서를 보면 접속조사 '(이)나'가 먼저 제시되고, 보조사 '(이)나'가 뒤에 제시되었다.

### 3.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

4종의 초급 한국어 교재에 조사의 형태, 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비교할 것이다. 초급 교재 4종의 단원에서 조사가 제시된 부분<sup>101)</sup>에 형태 및 용법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했다. 표에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겠다.

<표 81> 형태 및 용법 설명 제시 여부

한국어 교재	형태 설명	용법 설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	○
서울대 한국어	×	×
세종한국어	○	○
즐거운 한국어	×	×

초급 교재 4종 중 『세종한국어』 '대화 1, 2'의 '문법'에서만 형태와 용법 설명이 모두 제시되었다. '문법'에 제시된 조사의 한 줄 설명에 형태, 용법 설명이 모두 있다. 다만, 형태 설명은 조사가 '명사 뒤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조사의 결합 환경에 대한 설명만 제시되었다. 부사격조사 '에(목적지, 장소, 시간, 단위)', '○에

101) 『한국어와 한국문화』 '어휘와 문법 1, 2'의 '문법', 『서울대 한국어』 '문법과 표현 1, 2', 『세종한국어』 '대화 1, 2'의 '문법' 『즐거운 한국어』 '준비①, ②, ③'.

서 ○까지'의 설명에는 조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조사의 용법 설명은 대부분 '…을/를 나타낸다.'의 형식으로 조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되었다.

조사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로 제시되었다. 메모에는 조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관한 설명이나 조사와 같은 의미인 다른 조사에 대한 설명이 예문과 함께 제시되었다. 그리고 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세종한국어』의 부록에 있는 '문법 설명'에 제시되었다. '문법 설명'에서는 이형태가 있는 조사의 결합 환경, 조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이 설명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어휘와 문법 1, 2'의 '문법'에서는 조사의 용법 설명이 제시되었다. 조사의 용법 설명은 대부분 '…할 때 사용해요.'라는 형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형태 설명은 없지만, 교재에 제시된 학습 목표 형태와 도식화된 예시를 통해 형태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학습 목표인 조사를 '명조사' 형태로 제시해 조사가 명사와 결합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명사 → 명사+조사'로 도식화된 예시를 통해 조사가 명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형태가 있는 조사는 어떤 명사의 환경일 때 각각의 형태가 결합하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의 예시에서는 '에게/한테'와 '께'가 어떤 명사와 쓰이는지 보여주었다. 또 부사격조사 '(으)로(수단, 방향)'의 예시에서는 '(으)로'가 'ㄹ'받침이 있는 명사와 결합할 때는 '로'를 써야 한다는 주의점을 보여주었다.

『서울대 한국어』와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조사의 형태, 용법 설명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설명은 없지만, 형태와 관련된 정보는 두 교재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서울대 한국어』의 '문법과 표현 1, 2'에서는 학습 목표인 조사를 'N조사'의 형태로 제시하고, '예'에서 조사를 진하게 표시해 조사가 명사와 결합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형태가 있는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이형태와 관련된 형태 정보가 '예' 옆에 메모로 제시되었다.

메모는 명사의 환경에 따라 어떤 이형태가 오는지가 '받침 × + 형태', '받침 ○ + 형태'로 도식화돼 정리되었다. 부사격조사 '(으)로'의 메모를 보면 받침이 'ㄹ'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로’와 결합한다는 것이 따로 제시되었다. 이는 ‘(으)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법과 표현 1, 2’에 제시되지 않은 조사에 대한 설명은 『서울대 한국어』의 부록에 있는 ‘문법 해설’에서 볼 수 있다. ‘문법 해설’에서는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용법, 조사의 결합 환경, 이형태와 관련된 정보, 조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이 영어 번역과 함께 제시되었다.

『즐거운 한국어』의 ‘준비①, ②, ③’에서는 삽화 옆에 제시된 예문과 ‘형태 표’를 통해 조사가 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형태가 있는 조사의 경우 어떤 명사의 환경에서 각각의 이형태가 쓰이는지 제시되었다. 예문과 ‘형태 표’에 제시된 조사는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어 학습자들이 조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께’의 예문과 ‘형태 표’에서는 ‘에게/한테’와 ‘께’로 나눠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에게/한테’가 결합하는 명사와 ‘께’가 결합하는 명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돋보기’로 제시해 설명하고 있다. ‘돋보기’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다른 조사를 추가로 제시하거나 조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예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4. 교육 방향성 및 교재 개선 방안

지금까지 4종의 초급 교재에서 어떤 조사들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어떻게 제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초급 교재를 활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방향성과 추후 초급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먼저, 교사들이 초급 교재를 조사 교육에 활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격조사에서 대표적인 호격조사 ‘아/야’는 앞서 살펴봤듯이 중급 수준에 해당하

는 조사이다. 그래서 초급 교재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라고’, ‘같이’는 김중섭 외(2017)<sup>102)</sup>의 <부록 2>에 제시된 ‘문법 평정 목록’과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 제시된 ‘비교항목표 중급’<sup>103)</sup>을 보면 중급 수준의 조사인데, 초급 교재에 제시되었다. ‘(이)라고’는 무엇을 소개할 때 ‘(이)라고 하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초급 교재에서 ‘소개’와 관련된 주제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이’는 ‘처럼’과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조사라는 점에서 초급 교재에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급 수준의 조사라도 초급 교재에 제시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호격조사에도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호격조사 ‘아/야’가 초급 교재에서 다른 예문이나 지문에 나왔을 때 교사가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학습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호격조사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다.

초급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형태를 봤을 때 ‘조사+서술어’ 구성이나 문장 형태 안에 조사가 제시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교사는 이런 구성으로 제시된 조사를 가르칠 때 교재에 제시된 구성이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조사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사가 함께 제시된 서술어 이외에 다른 서술어와 결합해 사용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우선 교재에 제시된 구성을 통해 학습자들이 조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조사의 쓰임에 익숙해지면 ‘조사+서술어’ 구성이나 조사가 있는 문장 형태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예문을 통해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끼리의 구성으로 제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부터~까지’, ‘에서~까지’의 형태로 조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조사 ‘부터’, ‘에서’, ‘까지’를 단독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이 조사들이 홀로 쓰여도 ‘시작점’, ‘출발점’, ‘범위의 끝’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줄 필

102)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10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비교항목표 중급(11-14)”,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do?curPage=11&searchGrade=02&srchKeyword=&srchChosung=&searchCategory=&mode=&searchTabMenu=tab2&id=&srchKey=headword&searchChineseYn=>, 2022.9.26.

요가 있다.

조사는 하나의 조사에 여러 의미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같은 의미의 다른 조사가 쓰이는 경우, 같은 형태인데 기능이 다른 조사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있다. 그리고 보조사는 명사 이외의 부사, 어미 등에도 결합한다. 그래서 교사가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조사의 다른 의미나 결합 환경, 그와 연관된 조사 등에 대한 설명이 학습자들에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학습자 수준에 맞게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급 교재에서 하나의 조사에 여러 의미가 제시된 경우는 교사가 교재를 재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사가 조사의 의미 제시 순서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후 조사의 여러 의미를 비슷한 시기에 제시해도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교재에 제시된 순서를 재구성해 수업하는 것이다.

초급 교재에서의 분석 내용을 보면 조사 대부분이 모든 교재에서 똑같은 주제에 제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보면 교사는 수업을 준비할 때 다른 교재에서 조사가 제시된 주제·맥락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사는 여러 교재를 참고하여 학습자들이 조사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예문이나 상황, 과제 등을 구성해서 제시할 수 있다. 또 2종 이상의 교재에서 같은 주제, 비슷한 상황·맥락에 제시된 조사의 수업을 준비할 때는 교재들에 나와 있는 예문, 활동들을 참고하여 수업 자료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초급 한국어 교재의 단원에서 조사가 제시된 부분을 보면 조사에 대한 정보는 설명 이외에 학습 목표 형태, 예문, 메모, 도식·표 등으로 제시되었다. 교사는 이렇게 교재에 제시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사의 정보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명할 내용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교재에 조사의 설명이 있을 때도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는 교재에 제시된 설명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보다는 교재에 나온 설명을 토대로 단원의 주제와 제시된 예문의 상황 등을 활용해 교사의 말로 한 번 더 쉽게 바꿔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초급 교재를 보면 서술격조사 ‘이다’는 학습 목표로 제시될 때 대부분 어미와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김중섭 외(2017)<sup>104</sup>의 <부록 2>에 제시된 ‘문법 평정 목록’과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 제시된 ‘비교항목표 초급’<sup>105</sup>을 보면 1급, 초급 목록에 ‘이다’가 있다. 그리고 “대상의 부류나 속성을 지정하여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sup>106</sup>라고 설명되었다. 이를 통해 ‘이다’가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조사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초급 교재에서 ‘명사+이다’나 ‘이다’가 결합한 어미가 학습 목표, 다른 예문이나 지문, Tip 등에서 자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초급 교재에서 ‘이다’를 학습 목표로 제시해 ‘이다’의 기능을 알려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다’가 결합한 어미가 학습 목표로 제시된 초반 단원에 ‘이다’를 추가 설명으로 메모에 제시해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초급 수준의 조사 중에서 의미가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른 조사가 쓰이는 조사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조사를 가르칠 때 교사는 교재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연관이 있는 조사를 추가로 설명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안내 자료 역할을 하는 교재에서도 이 조사들을 학습 목표로 같이 제시하거나 메모로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관이 있는 조사를 한 번에 제시해 학습자들이 조사의 의미를 배우고 조사가 언제 쓰이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부사격조사 ‘에게’, ‘한테’, ‘께’의 경우는 초급 교재에서 연관이 있는 조사가 학습 목표에 같이 제시되거나 메모로 제시되고 있었다. 다만, 세 조사를 다 제시하지 않은 교재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조사도 추가로 제시해 보완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된 접속조사 ‘하고’도 쓰이는 상황에 따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조사 ‘와/과’와 ‘(이)랑’이 있다.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하고’와 같이 ‘와/과’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렇게 초급

104)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105)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비교항목표 초급(9-13)”,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do?curPage=9&srchKey=headword&searchGrade=01&srchKeyword=&srchChosung=&searchCategory=&mode=&searchTabMenu=tab1&id=&searchChineseYn=>, 2022.9.26.

106)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이다1”,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view.do?mode=view&id=68&srchChosung=%E3%84%B1&searchCategory=&searchGrade=01&searchTabMenu=tab1&searchChineseYn=&curPage=12>, 2022.9.26.

교재에서 접속조사 ‘하고’를 제시할 때 ‘와/과’와 ‘(이)랑’을 같이 학습 목표로 제시하거나 『즐거운 한국어』에서처럼 메모로 제시해 추가 설명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급 교재에 학습 목표로 제시된 보조사를 보면 4종의 초급 교재에서 모두 제시된 보조사 수는 적었다. 대부분 2종의 교재에서 제시되었는데, 이 경우도 『서울대 한국어』에서 보조사가 거의 다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초급 교재에 초급 수준의 보조사를 학습 목표로 더 선정해서 교재의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조사를 배워서 의사소통할 때 사용한다면 자신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급 수준에 맞는 보조사를 고려해 교재에 제시한다면 초급 학습자들이 문장을 구성하거나 소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사의 폭을 더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초급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조사를 제시할 때 일관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급 교재를 보면 이형태가 있는 조사들은 학습 목표 형태에서 이형태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면 이형태가 있는 모든 조사의 학습 목표 형태에서 이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른 초급 교재에서는 학습 목표에 조사의 이형태가 모두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학습 목표 형태에 조사의 이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이형태가 있는 모든 조사에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학습 목표에 조사의 이형태를 제시하기로 했다면 이형태가 있는 모든 조사에서 조사의 이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조사의 이형태를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어』를 보면 접속조사 ‘하고’의 학습 목표 형태는 ‘N하고 N’으로 제시되었다. 학습 목표에서 접속조사가 사용되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접속조사 ‘(이)나’는 ‘하고’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고’를 학습 목표로 제시할 때 접속조사의 결합 환경을 보여줬다면 ‘(이)나’도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접속조사라는 점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할 때 ‘하고’와 같이 ‘N(이)나 N’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형



태 제시를 한다면 학습자들은 접속조사 ‘(이)나’와 보조사 ‘(이)나’의 결합 환경 차이도 학습 목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초급 교재에서 조사의 설명이 있는 교재를 보면 조사의 설명은 한 줄 정도로 제시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초급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조사에 관한 내용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사의 설명을 예외 없이 하나의 똑같은 형식에 맞춰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알맞은 용어로 조사의 형태와 용법 설명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같은 형식 안에 제시된 설명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그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의 이형태와 관련된 정보는 『세종한국어』의 부록에 있는 ‘문법 설명’에서 처럼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받침× + 형태’, ‘받침○ + 형태’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오는 명사의 환경에 따라 결합하는 조사의 이형태를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예시도 함께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도식화로 제시된 조사의 이형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 V. 결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를 초급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성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교재를 대상으로 어떤 조사들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제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I 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다음으로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할 초급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을 조사한 원미진 외(2020)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한국어 교재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에 출판된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초급 교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2020), 『서울대 한국어』(2013), 『세종한국어』(2019), 『즐거운 한국어』(2019) 4종이다.

II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문법 이론서를 바탕으로 조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분석 대상으로 정한 4종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급 한국어 교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III 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초급 교재 4종의 조사 제시 양상을 4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첫째, 한국어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를 분석했다. 둘째,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들의 종류를 분석했다. 그리고 조사의 종류가 어떤 비중으로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조사의 제시 순서를 분석했다. 넷째,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에 대해 분석했다.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의 형태, 용법 설명이 교재에 있는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IV 장에서는 III 장에서 초급 교재별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급 한국어 교재 4종에 나타난 조사 양상을 ‘학습 목표로 제시된 조사’, ‘조사의 제시 순서’, ‘조사의 형태 및 용법 설명’ 3가지로 비교했다.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된 격

조사에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장소, 목적지, 시간)’, ‘에서(장소)’, ‘(으)로(방향)’, ‘보다’가 있었다. 그리고 호격조사는 초급 교재 4종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격조사는 초급 교재에서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격조사 중 주격조사 ‘이/가’, 부사격조사 ‘에(장소, 시간)’, ‘에서(출발점)’는 교재에서 같은 주제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격조사 대부분이 초급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될 때 조사 단독 형태, ‘조사+서술어’ 구성, 조사끼리의 구성 등 공통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다.

4종의 초급 교재에 모두 제시된 보조사에는 ‘은/는(주제)’, ‘까지’가 있었다. 초급 교재에서 보조사 ‘은/는(주제)’은 같은 주제에 제시되었다. 반면, 다른 보조사들은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보조사 대부분은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다. ‘부터’, ‘까지’는 서로 같이 쓰이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까지’의 경우 부사격조사 ‘에서(출발점)’와 같이 제시된 교재도 있었다. 초급 교재 4종에 모두 제시된 접속조사에는 ‘하고’와 ‘(이)나’가 있었다. 두 조사는 초급 교재에서 조사 단독 형태로 제시되었고, 서로 다른 주제에 제시되었다.

4종의 초급 교재에서는 첫 번째 교재 1과에서부터 조사가 제시되었다. 가장 먼저 제시된 조사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한 ‘이에요/예요’, 보조사 ‘은/는’이었다. 초급 교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부사격조사는 초급 교재의 초반이나 후반에 상관없이 제시되었다. 그 외의 격조사는 보통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다. 보조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외한 3종의 초급 교재에서 초반과 후반에 모두 제시되었으며, 교재에 따라 제시되는 비중의 차이는 있었다. 접속조사의 경우 ‘하고’가 초급 교재 초반에 제시되었고, ‘(이)나’가 후반에 제시되었다.

『세종 한국어』에서는 조사의 형태, 용법 설명이 한 줄로 제시되었다. 형태와 관련된 설명은 조사의 결합 환경에 대한 설명이었다. 조사의 용법 설명은 대부분 ‘...을/를 나타낸다.’의 형식으로 설명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형태 설명은 없었고, ‘...할 때 사용해요.’라는 형식으로 조사 대부분의 용법 설명이 제시되었다. 『서울대 한국어』와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조사의 형태, 용법 설명이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조사의 설명은 없었지만, 형태와 관련된 정보는 두 교재에서 예시나 도식·표 등을 통해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급 한국어 교재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재를 활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방향성과 추후 초급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초급 한국어 교재 4종을 선정해 기준에 따라 조사의 제시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급 교재를 활용할 때의 교육 방향성과 교재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는 점도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급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만 조사의 제시 양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어 조사 교육 방향성이나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자 추후의 과제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가 초급 한국어 교재를 활용해 조사를 교육할 때의 방향성이나 추후 초급 교재를 개발할 때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현화(2022), 『한국어 문법 교육론』, 소통.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 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 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명희 외(201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 조사 표현 어미』, 집문당.
- 이주행(201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보고사.
- 최대회·허원영(202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문법론』, 한국학술정보.
- 허용(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학위 논문>

- 김성일(2012), 「보조사 ‘-은/는’의 교육을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민(2007), 「일본 대학 한국어 초급 교재의 문법 항목 분석과 교재 개발 방안 -조사와 어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이청(2018), 「한국어 조사 교육 방안 연구 -교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지혜(2012),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의 내용 제시 방안 연구 -‘-에’와 ‘-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혜인(2020), 「한국어교육 문법 연구의 연구 동향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민정(2011), 「한국어 교재의 조사 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용준(200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이/가, -은/는’의 의미·기능과 효과적인 교수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상진(2018), 「한·일 양국 한국어 교재의 문법영역 구현양상과 개선방안 : 조사

- 와 어미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교육 내용 비교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지영(2014), 「터키인 학습자용 초급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분석과 교재 개발 방안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영(2012), 「한국어 초급교재의 조사 설명 방식에 대하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윤희(2015), 「한국어 교육용 조사 목록 선정 및 지도 방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자(2012),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기술 분석 연구 -한·일 양국에서 출간된 교재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련희(2006),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조사 학습 순서에 대한 연구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정(2015), 「한·중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결합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염아(2011), 「‘조사’ 구현 양상에 대한 한·중 한국어 교재 대비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 김영심(2016), 「《표준 한국어》 교재의 학습목표 진술 방식 분석」, 『국어교육 연구』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정은(2004),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교육 실태 연구 :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외국어교육)』, 11(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67-489.
- 이미지(2013),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 ‘이/가’, ‘은/는’의 제시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Korean Semantics)』, 42, 한국어의미학회, 407-442.

<연구 보고서>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원미진 외(2020), 「2020 국내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재>

국립국어원(2019), 『세종한국어 1(증보판)』, 도서출판 하우.

국립국어원(2019), 『세종한국어 2(증보판)』, 도서출판 하우.

국립국어원(2019), 『세종한국어 3(증보판)』, 도서출판 하우.

국립국어원(2019), 『세종한국어 4(증보판)』, 도서출판 하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1A 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1B 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2A Student's Book』,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2B Student's Book』, 투판즈.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8),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1(영어판)』,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미혜 외(2020),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 도서출판 하우.

이미혜 외(2020),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2』, 도서출판 하우.

이병규 외(2019),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1』, 마리북스.

이선웅 외(2019),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도서출판 하우.

이선웅 외(2019),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2』, 도서출판 하우.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교착어”, <https://stdict.korean.go.kr/sea>

- rch/searchView.do?word\_no=393663&searchKeywordTo=3, 2022.10.15.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조사(助詞)”,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81442&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81442&searchKeywordTo=3), 2022.10.15.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비교항목표 중급(11-14)”,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do?curPage=11&searchGrade=02&srchKeyword=&srchChosung=&searchCategory=&mode=&searchTabMenu=tab2&id=&srchKey=headword&searchChineseYn=>, 2022.9.26.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비교항목표 초급(9-13)”,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do?curPage=9&srchKey=headword&searchGrade=01&srchKeyword=&srchChosung=&searchCategory=&mode=&searchTabMenu=tab1&id=&searchChineseYn=>, 2022.9.26.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이다1”, <https://kcenter.korean.go.kr/kcenter/search/dgrammar/view.do?mode=view&id=68&srchChosung=%E3%84%B1&searchCategory=&searchGrade=01&searchTabMenu=tab1&searchChineseYn=&curPage=12>, 2022.9.26.
- 뉴욕한국교육원, “2023년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2022.9.21, <https://www.kecny.org/post/2023%EB%85%84-%EC%9E%AC%EC%99%B8%EB%8F%99%ED%8F%AC%EC%9A%A9-%EA%B5%90%EA%B3%BC%EC%9A%A9-%EB%8F%84%EC%84%9C-%EB%B0%8F-%EA%B5%90%EC%9E%AC-%EB%B3%B4%EA%B8%89%EC%9D%84-%EC%9C%84%ED%95%9C-%EC%88%98%EC%9A%94%EC%A1%B0%EC%82%AC-%EC%95%88%EB%82%B4>, 2022.11.20.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취지-기본방향”,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 2022.9.3.
- 정유철, 「‘한국어로 꿈을 이루는 곳’ 세종학당을 늘려 한류 열풍 가속화한다」, 『K스피릿』, 2022.6.16,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08>, 2022.8.12.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Postposition Aspect in Korean Textbooks -Targeted at Beginner's Korean Text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ze the postposition in Beginner's Korean textbooks. Because postposition in Korean is very developed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sentences, it is necessary to learn accurately postposition in Korean grammar for Korean learners to communicate smoothly. However, the postposition of Korean is a grammar that most Korean learners are unfamiliar with and difficult to learn.

Therefore, Korean learners should be systematically taught from the beginner level.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mparative analyze the postposition in Beginner's Korean textbooks. Among the beginner's Korean textbooks, we analyze the textbooks targeted adult Korean learners, because the postposition of Korean as second language is more unfamiliar and difficult for adult Korean learner who have already mastered their first languag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Won Mi-jin et al.(2020), we select four recently published textbooks to reflect the flow of Korean textbooks as study subject: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anguage』 (2013), 『Sejong Korean』 (2019), and 『Pleasant Korean』 (2019). The four types of beginner's textbooks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four criteria, first, what is the postposition presented as learning objectives, second, what types of postposition are presented as learning objectives, third, the order in which postposition were presented, and four, how the forms and usage explanations of postposition were presented.

From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beginner's textbooks in this study, first, we find that postposition presented in all four types of beginner's textbook

s include subject case marker ‘이/가’, object case marker ‘을/를’, complement case marker ‘이/가’, adverbial case marker ‘에(place, destination, time)’, ‘에서(place)’, ‘(으)로(direction)’, ‘보다’,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 ‘은/는(subject)’, ‘까지’, and conjunctive postpositional particle ‘하고’, ‘(이)나’. Most of the postposition presented in the beginner’s textbooks are presented in different topics and in a common form.

Second, ‘이에요/예요’ combined with predicative particle ‘이다’ and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 ‘은/는’ is presented first in the lesson 1 of the first textbook of the four types of beginner’s textbooks. And, adverbial case marker is presented the most in the beginner’s textbooks regardless of the beginning or latter part of the textbooks. Other case markers are usually presented at the beginning part of the beginner’s textbooks and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 is presented both at the beginning and latter part of most beginner’s textbooks. Conjunctive postpositional particle ‘하고’ is presented at the beginning part, and ‘(이)나’ is presented at the latter part in the beginner’s textbooks.

Lastly, in the 『Sejong Korean』, the explanation of the form and usage of postposition are usually presented as the form of ‘…is attached to a noun, indicate …’. In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there is no explanation of the form of postposition, and the usage explanation is presented as the form of ‘…is used to…’.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Pleasant Korean』, the explanation of the form and usage of the postposition are not presented, b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form could be examined through the examples or diagrams·tables, etc.

We hope that this study, which comparative analyzes the overall aspects of postposition in the Korean textbooks, will serve as a basi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extbook utilization in postposition education or the development of the beginner’s Korean textbooks.